

전북문화살롱

발행처 | 전북문화살롱 제작 | 신아출판사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16 전화 | 063)275-4000 이메일 | jbmunhwasi@daum.net



● 살롱 갤러리 | 조선시대 5봉수로 및 전북가야 봉수 분포도

기획특집 : 전북, 봉화와 봉수를 만나다

1. 전북, 반파국 봉화와 조선 봉수 병존 - 객장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2. 기문국과 반파국의 만남, 남원 봉화산 봉화 - 백옥종 (남원시청)
3. 전북 가야 봉화의 존재를 알린 장수 영취산 봉화 - 이현석 (장수군청)
4. 침령산성과 마주한 장수 침곡리 봉화 - 이정욱 (조선문화유산연구원)
5. 섬진강 유역의 소식을 받았던 장수 원수봉 봉화 - 유영춘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6. 임실 봉화산 봉화, 전북 가야 봉화의 구조를 밝히다 - 이은정 (전주문화유산연구원)
7. 전북 가야와 백제의 길목, 완주 탄현 봉수 - 방민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8. 백제와 전북 가야의 국경, 완주 불명산 봉화 - 장기재 (완주군청)
9. 암반을 활용한 봉화구의 존재, 진안 서비산 봉화 - 엄기일 (진안군청)
10. 진안 망바위 봉화, 금강유역 백제의 동향을 살피다 - 조명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1. 전북 가야의 섬진강으로 진출하다. 순창 생이봉 · 채계산 봉화 - 허건 (전북문화재연구원)
12. 서해방어의 요충지 김제 길곳 봉수 - 송종열 (조선문화유산연구원)
13. 서해안 봉수를 리트윳하다, 부안 점방산 봉수 - 박영민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반파국 봉화와 조선 봉수 병존

곽 장 근 군산대학교 교수, 가야문화연구소장

우리나라 통신유적 백미 봉화, 봉수

봉수(烽燧)란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횃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개인 정보를 다루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 기능만을 전달했다.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통신유적의 백미이자 으뜸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삼국시대 가야 봉화와 조선시대 봉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전북지역이다.

‘삼국유사’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봉화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에 백제 온조왕 10년 봉현(烽峴)을 비롯하여 봉산(烽山), 봉산성(烽山城) 등이 등장한다. ‘일본서기’에 가야 소국 반파국이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동안 백제와 전쟁을 치루면서 봉후제(烽候制)를 운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의 존재와 함께 당시 봉후(火)제가 운영됐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봉화는 국가의 존재와 함께 국가의 영역을 가장 솔직히 대변해 준다. 이제까지 삼국시대 가야 봉화대가 학계에 보고된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전북 가야의 영역도 삼국시대 가야봉화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충남 금산군에서도 가야 봉화가 발견되어 전북 가야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1500년 전 백두대간을 무대로 번성했던 전북 가야는 한마디로 봉화 왕국이다.

1123년 서공이 편찬한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송나라 사절단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도착하면 언제나 야간에는 항로 주변 산봉우리에서 봉화를 올렸고, 봉화는 순차적으로 밝혀서 왕성에까지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봉화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등대 역할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사절단은 군산도 군산정에서 김부식 주관으로 국가 차원의 영접을 받았다.

고려 의종 3년(1149)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이 봉수의 거화수를 규정하고 봉수군에게 생활의 대책을 마련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감독 책임자까지 배치한 사실로 보아 봉수의 격식이 규정됐고, 야화(夜火)와 주연(晝烟)으로 구분하여 거화수도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 봉수제의 시작이 고려시대로 굳어진 결정적인 근거이다. 이로 말미암아 학계에서 고려시대 이전 봉화의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 때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거화 거수 등 관계 규식을 새로 정했다. 그리고 연변의 연대를 새로 축조하고 나아가 봉수선로를 일제히 획정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봉수제가 거의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최전성기로 조선 전기의 안정기를 이끌었다. 부안 점방산 봉수 등 전북 서해안을 따라 배치된 봉수선로는 조선시대 봉수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 10년 일시적으로 봉수제가 폐지됐다가 중종 대에 다시 복구하기도 했다. 선조 대에 이르러서 봉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파발제를 도입하여 봉수의 역할이 크게 감소됐고, 숙종 때 봉수 변동론으로 전국 각지의 봉수 재편이 이뤄졌다. 숙종 이후에는 봉수제와 파발제도가 군사적 통신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됐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배치된 고창 구시포, 부안 호고리·점방산, 김제 길곶, 군산 점방산·오성산 봉수는 남해안, 서해안으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데 큰 목적을 두었다. 순천 돌산도에서 출발해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개화산 봉수에 도달한다. 부안 위도와

군산 어청도·연도 등 바닷길을 따라 배치된 봉수는 배의 안전 항해를 담당했던 것 같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봉수는 조선시대 5봉수로 중 제5거에 해당하는 연변봉수이다.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다가 군산 점방산 봉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충남 서천 운은산 봉수로 이어져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진 간봉이며, 다른 하나는 군산 오성산 봉수에서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충청감영이 위치한 공주를 경유하는 직봉이다.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대 발견되다

위에서 살펴 본 조선시대 봉수는 그 규모가 거대하고 정형성을 띤다. 그러나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봉화는 시원형으로 봉화대의 규모가 작다. 봉화대는 길이 8m 내외로 석축과 토축, 자연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어 만들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군산대학교 고고학팀 봉화 찾기 프로젝트로 가야 봉화의 분포양상과 여덟 갈래 봉화로가 복원됐다.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전북 동부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봉화산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110여 개의 봉화가 학계에 보고됐는데, 장수군 등 전북 가야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모두 여덟 갈래의 봉화로가 복원됐는데, 모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모든 봉화대와 봉화대를 이어주는 봉화로는 출발지와 종착지가 있다. 그리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에는 국가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대형고분이 있어야 한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무주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순창군, 충남 금산군에서 각각 시작하는 여러 갈래의 봉화로가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장수군 장계분지 동남쪽 백화산에서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고고학으로 밝혀낸 반파국은 4세기 말엽 경 처음 등장해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멸망했다. 금남호남

정맥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 대규모 구리 및 철산개발이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장수 노곡리·호덕리 마한의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을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남겼다.

장수군 장계분지는 반파국 도읍지였다. 장계분지 동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성주산(聖主山)으로 반파국 도읍지 주산이다. 성주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자락에 태봉(胎峰)이 있는데, 이곳에 왕비의 태를 묻었다고 전한다. 태봉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반달모양으로 휘감아 최고의 혈치를 이뤘는데, 그곳이 바로 반파국 추정 왕궁터이다. 후백제 견(甄)훤왕은 익산 왕궁리처럼 추정 왕궁터 부근에 절을 세웠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반파국 왕과 왕비, 왕족이 잠든 지하궁전이다. 현재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는데, 본래는 훨씬 더 많았다. 일제강점기 도꾸라세이지가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대부분 파헤쳤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굴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으로 반파국의 발전상을 역설적으로 반증해준다. 2020년 가야 고총에서 단야구가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실 봉화산 학술발굴에서 반파국 분묘유적 출토품과 똑같은 가야토기들만 나왔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에서는 신라의 진출도 확인됐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반파국을 비정하는데 문헌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조건을 충족시켰다.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봉화 왕국 반파국이 백제의 동태를 살피고 제철유적의 방비를 목적으로 봉후(冢)가 운영됐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봉수는 남북한 합쳐 700여 개소에 달한다. 당시 전국을 다섯 갈래의 길로 나누어 나라를 굳건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산성에 비해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서해안과 섬에서 발견된 봉수들은 부안 점방산 봉수를 제외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우리들이 봉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관리 및 보존 방안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한다.

가야사 국정과제, 봉화대 실체 밝히다

전북 동부지역 가야 봉화대 시(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봉수와 차이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다. ‘일본서기’에는 봉후라고 소개하여 반파국 가야 봉화대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에는 봉후 혹은 봉화, 봉화대라는 의미로 통용됐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때는 거의 봉수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됐는데, 여기서 봉수(烽燧)는 신호를 주고받던 연기와 햇불을 의미한다.

봉화대의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 봉수는 그 종류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내지봉수는 길이 40m 내외이다. 반면에 가야 봉화대는 길이 8m 내외로 그 축조 재료도 다양하다. 재료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깎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흙으로 쌓거나 자연암반을 다듬은 경우도 있다. 섬진강 유역 봉화대는 거칠고 조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한 공통성을 보였다.

당시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도 확연히 다르다. 조선시대 봉수는 연조로 불리는데, 연조는 그 수가 다섯 개이다. 하지만 가야 봉화대는 봉화구 혹은 봉화시설이 한 개소이다. 봉화구 혹은 봉화시설은 처음에 원형을 이루다가 후대로 가면서 그 평면 형태가 앞쪽이 둥글고 뒤쪽이 네모난 전방후원형으로 변한다. 섬진강 유역에 배치된 봉화대는 봉화구 혹은 봉화시설이 대부분 전방후원형이다.

장수 봉화봉 봉화대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편이 출토되어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9년 11월 23일 군산대학교 고고학팀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된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처음 발견된 곳으로 반파국 서쪽 국경에 위치한다. 2020년 11월 중순 경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 시굴조사 때 길이 900cm 내외의 봉화대 정상부에서 봉화시설도 발견되어 그 성격이 가야 봉화로 밝혀졌다. 백제 기와와 그 속성이 확연히 다른 삼국시대 기와편이 가야토기편과 함께 출토되어 가야 기와의 존재 가능성도 암시해 주었다.

봉화군이 묵던 주거 공간과 물을 담던 집수시설, 봉화대를 지켜준 성벽도 가야 봉화대를 찾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가야 봉화대가 발견되어 ‘전북 가야’ 앞에 ‘봉화 왕국’이라는 용어가 초대됐음을 밝혀둔

다. 이제 막 학술발굴을 통해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낸 가야 봉화의 실체와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한 학제 간 또는 지역 간 융복합 연구가 시작됐으면 한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에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유적이다. 반파국 영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200여 개소에 달한다. 반파국이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국력을 다져 전국에 봉화망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보면 봉화대와 제철유적은 서로 나눌 수 없는 한 묶음이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은 제련부터 정련, 주조까지 모두 담아낸 일관제철소이자 종합제철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제철유적으로 밝혀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반파국과 제철유적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장수군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고증하기 위한 장수군의 관심과 지원에 큰 박수를 보낸다. 반파국이 봉화 왕국으로 융성하는데 제철유적이 핵심적인 공헌을 했던 것으로 추론해 두고자 한다.

2017년 가야사가 100대 국정과제에 초대되어 전북 동부지역 봉화대 발굴이 시작됐다. 110여 개소의 봉화대 중 장수 봉화산·삼봉리, 완주 탄현, 임실 봉화산 봉화대가 선정됐다. 2020년 임실 봉화산에서 반파국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가야토기만 출토되어, 그 운영 주체가 반파국으로 다시 또 확인됐다. 올해 12월 4일 임실 봉화산 발굴성고를 학계에 알리는 첫 학술회의도 임실문화원에서 열린다.

2017년 11월 25일 백두대간 치재 부근에 가야사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봉수 왕국 전북 가야’ 기념비도 세웠다. 1500년 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왕국 반파국은 110여 개소의 봉화대를 전북 가야의 영역에만 남겼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유일한 가야 왕국이자 삼국시대 유일한 가야 봉화 왕국이다. 2020년 반파국 봉화대 재현과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가야를 정중히 초대해 준 장수군과 장수군민들의 반파국 사랑에 큰 경의를 표한다.

기문국과 반파국의 만남, 남원 봉화산 봉화

백 옥 종 남원시청

백두대간의 고봉인 봉화산(해발 919.8m)의 정상부에는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을 하나로 묶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봉화산 봉화가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장수군 변암면 동화리와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의 경계를 이룬다.

장수 영취산부터 지리산 정령치까지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한 갈래의 봉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백두대간을 넘는 주요 고갯길을 사이에 두고 고대 산성과 봉화가 세트관계를 이루며 분포되어 있다. 봉화산 봉화도 이 봉화로 상에 있는데 남쪽으로 백두대간의 주요 고갯길인 꼬부랑재와 다리재를 사이에 두고 깃재토성, 논곡리 봉화산 봉화와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치를 사이에 두고 영

취산 봉화와 연결된다.

2013년 남원 봉화산 봉화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정상부의 중심에 표지석과 측량 기준점이 시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조사는 정상부의 가장자리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영취산 봉화와 비슷한 양상의 단시설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붕괴·교란되어 정확한 구조와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남쪽구역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봉화대는 정상부의 자연암반을 깎아내어 여기에서 떨어



남원 봉화산 봉화와 백두대간



남원 봉화산 봉화 전경

저 나온 석재를 사용하여 경사면에 쌓아 올리고, 그 내부에 비교적 소형의 석재를 깔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봉화대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 12m, 단축 8m 내외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삼국시대 토기 편과 다량의 숯이 확인되었다. 수습된 토기 편 중 일부는 외면에 밀집파상문이 새겨져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 가야계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가야 토기들과 그 속성이 같다.

남원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관방유적 중 백미(白眉)로 여겨지는 남원 봉화산 봉화는 운봉고원 서남쪽 큰 관문 구동치 부근에 위치한 남원 덕치리 봉화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봉화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수군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 세력(반파국)에 의해 설치·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화산 봉화는 남원 운봉고원 서쪽을 감싼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진 봉화 중 유일하게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봉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봉화산 봉화와 연계된 백두대간 속 봉화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최근 가야사 학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야계 소국 기문국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원 봉화산에서 서남쪽으로 4km 가량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봉화산이 있다. 백두대간 치재의 남쪽 산봉



봉화산 봉화 발굴 후 모습



봉화산 봉화에서 출토된 토기 편

우리로 달리 '매봉'으로도 불린다. 백두대간 치재는 큰 고갯길이라는 뜻으로, 그 명칭만으로도 역사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매봉 봉화에서 동남쪽으로 4km 가량 떨어진 백두대간 시루봉에도 봉화가 있다. 이곳에서는 운봉고원에 존재했던 가야세력인 기문국의 수장층 무덤으로 알려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청계리 고분군이 한 눈에 조망된다.

시루봉과 매봉 사이에 아막성이 위치한다. 종래에 남원 성리산성으로 불리던 곳으로 북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 산성이다. 아막성은 『삼국사기』에 백제와 신라가 20여년 간 전쟁을 벌였던 최대의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실시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통해 성내에서 가야시대 토기편을 비롯하여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유물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하여 아영분지에 자리하고 있는 가야세력과의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 가야 봉화의 존재를 알린 장수 영취산 봉화

이현석 장수군청

장수 영취산은 한반도를 동서로 나누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분기점으로 해발 1075.6m의 고봉이며 지리적으로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의 경계를 이룬다. 영취산이란 지명은 고대 인도 마갈타국의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석가모니가 이곳에서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설법했다고 한다.

영취산을 비롯하여 인근의 장안산·법화산·팔공산 등 장수군에는 불교와 관련성이 높은 산 이름이 많으며 이를 단초로 고대역사·문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다.

영취산 봉화는 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산줄기를 따라 구시봉 봉화, 변암 동화리 봉화산 봉

화 등과 연결되며 무릉고개를 사이에 두고 장안산 봉화와 마주하고 있다. 고대 교통로 상에도 영취산 인근에 자리한 무릉고개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장계분지 → 무릉고개 → 중치 → 함양으로 이어진다.

영취산 봉화 발굴조사는 2014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0%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었으며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 필자도 당시 발굴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영취산의 정기를 받아 발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결혼이라는 인생 최대의 큰일을 겪었으며 이후 장수군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장수 영취산 봉화와 백두대간



영취산 봉화 발굴조사 후

조사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정말 힘든 여건이었다. 새벽밥을 먹고 군산에서 출발하면 2시간 이상이 걸려 장수 무릉고개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30분 가량을 등반해야 조사지역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익숙해진다는데 반복될수록 체력이 더욱 힘들어졌던 기억이 난다. 참여 연구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노고가 없었다면 장수군의 화려한 고대역사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취산 봉화는 등산로 등의 개설로 훼손이 심하였으며 주변에 무너진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조사 진행에 있어서도 행정구역상 장수군 지역에 국한되어 전면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일부로 한정되었다. 조사구역의 여건상 1m 폭의 트렌치를 구획하고 지표상에 흙을 걷어내 봉화유적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의 흔적을 파악하였다. 세월의 흐름으로 석축 시설이 정연하지 못하게 남아 있었지만 8m×5m 규모의 장방형 단시설과 외곽을 둘러싼 듯한 석축이 확인되었다. 시설 내부에서 호형토기편, 병형토기편, 완편, 구연부편, 저부편, 동체부편, 철부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철기가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토기편은 선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 토기로 장수군 대표 가야 고분군인 삼봉리 고분 출토 유물과의 유사성이 높다. 같은 시기에 조사된 변암 동화리 봉화산 봉화와의 유구의 축조 기법과 출토유물의 양상이 유사하다. 또한, 유구 주변의 석축시설은 봉화의 외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 시굴조사가 진행된 원수봉 봉화와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봉화대 기초 시설



영취산 봉화 출토유물

이를 토대로 현황을 살펴보면 장수지역에 자리했던 고대 봉화유적은 당시 가야세력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문헌 속에서 기록된 봉화를 운영했던 “반파국”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장수지역 가야문화를 비롯한 봉화유적을 부정하는 시각이 있다. 이는 지금의 시점에서 장수를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동안 학술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천 오백년전 장수지역은 지금의 무·진·장 속의 장수와는 분명 격이 다르다. 장수는 잊혀진 왕국 가야와 닮아 패자의 역사이기에 철저하게 그 기록이 지워졌다. 하지만 고고학적 학술연구와 문헌기록 연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제 곧 장수군의 화려한 고대역사문화를 위상을 밝히기 위한 봉화불이 활활 타 오르리나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기대감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

침령산성과 마주한 장수 침곡리 봉화

이정욱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침곡리 봉화는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와 계남면 침곡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침령제의 북쪽산 정상부(해발 617m)에 위치한다. 침곡리 봉화에서 남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침령산성이 있으며, 산성과 봉화 사이에 방아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침곡리 봉화는 방아재를 통해 장수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운영된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었다.

2020년 4월에 장수 침곡리 봉화의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학술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봉화시설, 집수시설, 정상부를 감싸는 석축시설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수지역

의 삼국시대(가야) 봉수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산 정상부는 ‘사람 인(人)’자 모양의 능선이 세 갈래로 형성된 지형으로, 봉화는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화시설은 산 정상부 가장 높은 곳에서 확인되며, 정상부를 따라 돌아가는 자연 암반을 일부 다듬고 그 주변을 흙으로 성토하여 단을 높이고 안정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시굴조사의 한계로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봉화대 규모는 장축 11.25m, 단축 7.5m 정도의 장방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봉화대 중앙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장수 침곡리 봉화 원경(서남쪽에서)



봉화대 근경

남·남동·북서쪽에서 봉화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자연 암반을 파내어 계단식의 출입시설을 조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봉화대 상부에 설치한 탐색트렌치 조사를 통해서 암반을 타원형으로 파낸 흔적을 확인하였는데, 벽면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과 소토(불 먹은 흙)가 확인되었다. 봉화대 중앙에 위치하는 점과 타원형으로 암반을 파내고 벽면에서 불맞은 흔적과 소토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봉화에서 불을 피우는 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은 정상부의 서·남·동쪽 일부에서 잔존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산의 지형과 유구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망루 기반부, 성벽, 성벽 채움석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상부 일대 경사면에 석축들이 무너져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석재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한 석축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데, 경사를 이용해 하단부부터 석축을 쌓고 상단부를 계단식으로 들여쌓았다. 내부는 잡석을 이용해 채웠으며, 상단부 7단~8단, 하단부 4단~6단이 확인된다. 석축은 자연 암반 위에 다듬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조잡하게 쌓아 올렸으며, 그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백제나 신라계 산성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완주 탄현·불명산 봉화 등과 같은 최근 전북 동부 지역에서 가야계 봉화로 알려진 유적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수시설은 물을 구하기 힘든 곳에서 식수·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산성과 봉화에서 중요한 시설



침곡리 봉화에서 출토된 유물

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봉화시설 서북쪽 평탄지에서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지표면 일부가 움푹 들어가 있고 서북·동남쪽 벽면에 석축열이 돌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조사 결과, 지표에서 160cm 정도 아래 벽면에서 암회색 점질토가 평탄하게 확인되었는데 점토를 이용해 바닥을 시설한 집수시설로 추정된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시루편, 버루편,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등 가야부터 나말여초까지의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인근에 위치한 침령산성과 유사한 양상이다. 침곡리 봉화는 가야 세력들에 의해 처음으로 운영되다 나말여초기에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유구와 유물 및 봉화의 지정학적인 위치 등을 근거로 볼 때, 장수 침곡리 봉화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 세력과 관련된 유적으로 조사지역 정상부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주변의 세 능선에 석축을 쌓아 봉화를 운영·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는 시굴조사 단계의 성과로 봉화의 정확한 성격 및 규모 등을 논하기 어렵다. 향후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장수 침곡리 봉화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 세력의 관방유적 연구와 역사성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진강 유역의 소식을 받았던 장수 원수봉 봉화

유영춘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도로망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은 과거, 섬진강 유역에서 장수 분지(장수읍)로 들어서기 위해 거쳐야 했던 주요 고갯길이 바로 ‘자고개’이다. 이곳은 삼국시대에 백제·신라·장수의 가야가 서로 국경을 맞대었던 전략상 요충지이다.

자고개 북쪽에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인 ‘팔공산’이 자리한다. 팔공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원수봉(해발 1,013.4m)’ 정상부에 봉화가 있다. 봉화에서 바라보면 자고개를 비롯하여 멀리 장수읍과 산서면이 조망된다. 산봉우리 주변에는 봉화의 축조와 관련된 석재가 곳곳에 흩어져있다. 등산객이 만든 돌탑이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지난 2014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원수봉 봉화의 구조와 운영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봉화는 후대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인해 대부분 무너져 내렸으나 외측으로 면을 맞춰 쌓은 석축(石築)의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다.

석축은 봉화대의 기초시설로 판단되며, 그 형태는 사각형(또는 직육면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 토기가 출토된 장수 영취산 봉화의 사각형 기초시설과 유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수봉 봉화는 정상부의 암반을 평평하게 다듬어 터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에서 생성된 석재를 쌓는 방법으로 축조되었다. 석축 주변의 퇴적층에서 기



자고개에서 바라본 장수 원수봉 봉화와 함미산성



장수 원수봉 봉화에서 바라 본 장수분지

벽이 두껍고, 표면에 선문이 타날된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원수봉 봉화는 자고개 맞은편의 ‘신무산 봉화’를 비롯하여 서남쪽의 ‘오성리 봉화’ 등과 대응된다. 삼국시대에 섬진강 일대의 긴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수봉에서 남쪽으로 960m 가량 떨어진 산줄기에 장수 함미산성(해발 800~825m)이 있다. 이 산성은 둘레 430m 내외의 돌로 만든 성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6기의 우물(集水施設)과 건물지 축대(築臺), 일부 성벽 등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산성에서는 백제·신라·가야 등 삼국시대 유물과 함께 후백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간의 조사 성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산성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백제 시기에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원수봉 봉화와 장수 함미산성이 하나의 산줄기를 두고 서로 조합을 이루며 배치된 것은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자고개를 감시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수봉 봉화가 가야토기가 출토된 장수 영취산 봉화의 구조와 유사하고 서로 대응되어 봉화망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원수봉 봉화의 운영 주체는 장수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가야로 추정된다.



장수 원수봉 봉화 봉화대 근경



장수 원수봉 봉화 출토 토기편

임실 봉화산 봉화, 전북 가야 봉화의 구조를 밝히다

이은정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임실 봉화산(467m)은 전주에서 남원으로 향하는 옛길인 말치재의 서쪽 봉우리에 자리하며, 봉화산 정상부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기슭(461m)에서 봉화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봉화산 봉화는 『조선보물고적자료』에 의하면 ‘둘레 144m의 흙으로 쌓아 만든 것으로서 일명 두치(斗峙)봉수대’라고 알려져 있으며, 서북쪽의 옥녀봉 봉화, 남서쪽의 무제봉 봉화, 북동쪽의 덕재산 봉화, 남쪽의 노산 봉화와 연결되는 요충지에 자리한다.

봉화산 봉화는 2013년 지표 조사 당시만 해도 흙으로 쌓은 단 형태의 봉화대 기초부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군부대의 외곽 철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모두 훼손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가야문 화유산 연구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시·발굴조사를 통해 봉화산 봉화대의 구조와 불을 피웠던 시설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봉화산 봉화에 대한 1차 조사(시굴)는 2013년 지표조사에서 토단(흙으로 쌓은 단)이 위치했던 지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암반층을 깎아 파낸 원형의 구멍이

열을 이루어 확인되었는데, 이는 봉화대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되었다.

2차 조사(시굴)는 봉화대가 자리한 곳에서 남동쪽으로 70m 정도 떨어진 평탄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곳은 자연 암반을 깎아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경사면에는 흙과 잡석을 섞어 인위적으로 축조한 토축시설(너비 2.5m, 높이 1m 내외)과 생토면 위로 여러 겹의 목탄과 소토층으로 겹겹이 쌓은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평탄 대지는 봉화군의 주둔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겹으로 쌓은 성토층은 방호벽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굽다리접시(고배, 高杯), 목짧은항아리(단경호, 短頸壺),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3차 조사(발굴)는 1차 시굴조사에서 기둥 자리가 확인된 지점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발굴 조사를 통해 정상부에는 암반을 깎아 평탄지를 조성하고 굴착한 다수의 기둥 구멍을 비롯해,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기둥 구멍은 모두 28개로서 암반을 파내어 만들었고, 규모는 직경 25~45cm, 깊이 10~20cm 내외이다. 이 구멍들



토축 조성 상태 및 유물 출토상태



주공군 전경

은 봉화대의 토단을 쌓기 위한 버팀목을 지지했던 나무 기둥(영정주공(永定柱孔))으로 판단되는데, 배치양상을 고려할 때 원형 또는 타원형의 토단을 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불을 피웠던 봉화시설은 석재가 세워져 있고, 주변에 소토가 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석재와 점토로 축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 불을 피운 흔적 3곳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가야계 속성을 보이는 뚜껑, 굽다리접시, 항아리편 등 연·경질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중산모자형 꼭지가 달린 뚜껑은 장수 삼고리·동촌리 고분군 등 가야의 수장층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조사 성과를 통해 볼 때, 임실 봉화산 봉화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토단을 두르고, 석재와 흙을 혼합하여 아궁이 형태의 봉화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봉화는 임실 경각산에서 시작되어 장수로 이어지는 봉화로 상에 위치하는 점, 그리고 출토 유물의 속성을 볼 때, 장수 지역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 세력에 의해 축조·운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봉화군이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 평탄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임실 봉화산 봉화대와 부속시설의 성격과 구조 등 전체적인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봉수 시설(상) 및 출토유물(하)

전북 가야와 백제의 길목, 완주 탄현 봉수

방민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완주 탄현 봉수(전라북도기념물 제139호, 2019.11.15. 지정)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숲고개(炭峴)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능선의 정상(해발 457.4m)에 축조되어 있다. 탄현 봉화로 가는 길을 지금도 ‘숲고개 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운주면 고당리와 주암리를 통하는 이 숲고개 길에 탄현 봉화로 가는 등산로가 나 있다. 봉화로 올라가는 길은 산세가 험하여 대부분 밧줄을 잡고 가야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 편이다.

탄현(炭峴)은 삼국시대에 전략적 요충지로, 봉화의 남서쪽으로는 용계산성, 북동쪽에는 탄현산성(고종리산성 혹은 산북리산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화산면과 경천면 일대에서는 수락봉 봉화, 성재산 봉화, 불명산 봉화 등이 조사되었다. 이들 봉화는 완주-진안(금산)-장수를 이

어주는 봉화로로서, 천호산성에서 시작해 각시봉·불명산·탄현 봉화를 거쳐서 진안 태평 봉화를 경유하여 최종 도착지인 장계분지까지 이어졌으며, 전북지역의 가야 세력이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조사는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실시된 바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축시설은 원통형으로 규모는 하단부 직경 840cm, 상단부 직경 750cm이고, 높이는 365cm이다. 암반 위에 장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상단으로 오를수록 점점 좁혀지는 형태이다. 원통형 석축시설은 맨 상단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봉화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봉화의 기



완주 탄현 봉수 원경



봉화대 근경



방형 기단부(선대 봉화대) 근경



등봉시설 근경



적석유구 근경

능보다는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망대와 같은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탄현 봉화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용계산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망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원통형 석축의 아래에는 방형의 또 다른 석축이 확인되었는데, 원통형 석축의 북서쪽에서 방형 기단부가 원통형 석축의 하단부로 이어지는 양상이 파악되었다. 방형 기단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으로, 한 변의 길이는 950cm이며, 잔존된 높이는 170cm 내외이다. 방형의 기단부는 암반을 깎거나 석축을 하여 축조되었고, 이 기단부 위에 원통형 석축시설이 다시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통형 석축시설 내에서는 삼국시대 기와편과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개축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방형의 기단부는 원통형 석축시설 이전에 축조된 방형의 봉화대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방형의 봉

화대는 최근에 완주 불명산 봉화, 진안 대불리 태평 봉화, 장수 영취산 봉화 등에서 조사되었는데, 삼국시대 가야 봉화로 추정되고 있다.

원통형 석축시설의 북쪽에서는 암반을 인위적으로 층층이 다듬은 계단상의 등봉 시설을 확인하였다.

한편, 원통형 석축시설에서 남쪽으로 23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 적석 유구는 산줄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불탄 석재와 소량의 숯이 확인된 바 있다. 적석유구는 주위에서 원통형 석축시설에서 출토되고 있는 삼국시대 기와편, 대형 호편 등이 수습되고 있어 원통형 석축시설이 운영되었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통형 석축시설을 지키던 파수꾼의 취사 공간이나 불씨를 관리하는 곳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백제와 전북 가야의 국경, 완주 불명산 봉화

장기재 완주군청

완주군은 해양과 내륙을 통하는 만경강이 흐르고, 서부 평야와 동부 산간을 잇는 통로 지역으로 예로부터 당시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이러한 지형적, 역사적 배경은 완주군에 다양한 선사·고대 문화들이 공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만경강 유역에 분포하는 배매산성, 구역리산성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 양식으로 축조된 토성들로 백제세력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외에 신라, 가야, 외래계 문화에 해당하는 유물들도 공반 출토되고 있어 다양한 문화가 교류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완주군에서 전북 가야사 복원연구사업 일환으로

가야유적 전수조사들을 진행한 결과, 가야문화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적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새로운 지역 역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확인된 유적은 총 54개소이며, 산성 10개소, 봉화 9개소, 제철유적 35개소이다. 이중 전북 가야의 특징적 유적으로 꼽히는 봉화와 제철 유적들은 금속 문화 태동지인 완주군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경강을 통해 일찍부터 금속 문화가 발달한 완주군은 기술의 정착과 전파는 물론, 철 생산지로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다. 그 결과 기술과 산지를 점유하려는 정치체 사이의 경계가 형성되었는데, 당시 완주군 동부지역을 세



불명산 봉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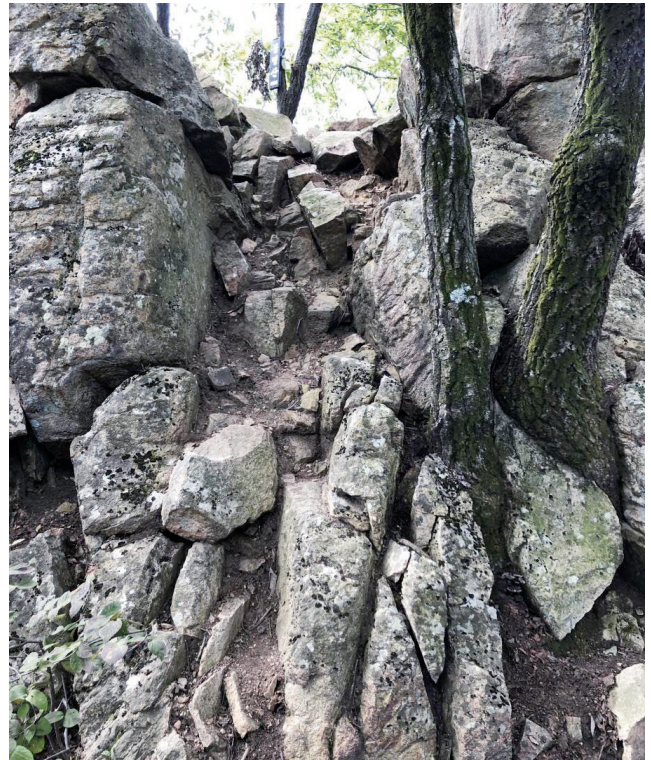


봉화대 축조 상태

력권 내에 두려는 백제와 가야 세력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완주군에 관방유적인 봉화가 조성되고, 제련 등의 기술과 연결되는 제철유적의 발견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입증하고 있다.

완주 불명산 봉화는 완주군 경천면과 운주면의 경계이자 금강과 만경강의 분수령을 이룬 불명산(佛明山) 정상부에 위치한다. 불명산은 불교 용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혀주는 산이란 뜻이며, 이 산의 서쪽 기슭 중단부에 완주 화암사가 위치한다. 불명산 봉화는 전수조사 당시 동서 길이 520cm, 남북길이 680cm 내외의 규모의 평면 장방형 봉화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유적의 잔존규모와 성격, 운영시기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는 봉화대 1기와 수혈 1기로 봉화대의 경우, 자연 암반 사이 빈자리에 부분적으로 할석을 쌓아 완성하였고, 남동쪽의 자연 암반을 거칠게 손질하여 등봉(登峰)시설을 조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연 암반 위에 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을 쌓았는데 남서쪽으로 높이가 100~220cm의 7단~13단 석축을 축조하였고, 북서쪽은 높이가 165~180cm의 10단~13단 석축을 축조하였다. 아울러 남동쪽의 등봉시설은 자연 암반석을 거칠게 다듬어 부정형의 계단 5단~6단으로 축조되었으며, 등봉 시설 인근의 자연 암반 위에 크기가 다른 할석을 4단으로 쌓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봉화대 정상부에 평탄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유물은 봉화대 정리 과정 중 경



등봉시설 근경

질토기편과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봉화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수혈 유구는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10cm 내외의 깊이로 검은 재와 함께 목탄이 일부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불명산 봉화는 시굴조사 단계로 유구의 유무와 잔존상태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 조사가 요구되며, 봉화의 축조방식과 주변 시설의 유무 및 성격, 표지적 유물 확인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명산 봉화는 탄현 봉화, 용복리산성 내 봉화 등 주변 가야문화 유적과의 비교분석에 중요한 학술 자료로서 유적의 성격과 운영 주체에 관한 실마리를 풀어줄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향후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자료들이 확인된다면 완주군에 진출했던 가야 세력의 실체 확인과 지역 역사 정립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반을 활용한 봉화구의 존재, 진안 서비산 봉화

엄기일 진안군청

진안 마령면 계서리 서비산에는 고대 봉화터가 존재한다. 봉화가 위치한 마령면 일원은 섬진강 수계에 위치하며, 서비산 봉화 주변에는 강정리 합미산성, 강정리산성, 평지리토성 등 고대 관방유적이 밀집분포하고 있어 고대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산 봉화는 서산마을 서쪽에 솟아있는 높이 460m 내외의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데, 봉화 서남쪽으로는 고대 주요 교통로로 추정되는 응봉치와 배치가 조망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구전으로 봉화터가 있다고 전하는 곳으로, 현재 산 정상부가 매우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어 봉화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져 왔다.

봉화가 위치한 서비산 정상부에는 현재 봉화와 관련된 지상구조물이 남아 있지 않고 자연암반 가장자리를 깎아 내 봉대를 조성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으며, 자연암반으로 형성된 봉화대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11.2m×5.6m 내외이다. 봉화대의 북쪽 상면에 암반을 파낸 전원후방형(앞쪽은 둥글고 뒤쪽은 네모난 형태)의 봉화구가 확인되는데, 규모는 길이 20cm, 너비 10cm, 깊이 25cm 내외이다. 흙의 내부에는 불에 그을려 있는 흔적이 남아 있어 봉화를 올릴 때 불을 지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비산 봉화는 석재를 단 형태로 쌓아올린 구조가 아닌 자연암반층을 정지하고 그 위에 봉화구를 설치한 형태의 봉화로 추정된다.

봉화의 동남쪽 10m 가량 떨어진 지역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평탄대지가 남아있다. 길이 8.5m, 너비 5m 내외의 규모로 확인되는데, 봉화의 관리했던 군사들의 거주 공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산 봉화는 인근의 강정리산성, 합미산성 등과 함께



서비산 봉화 전경



봉화대 근경



봉화구 근경

고대부터 섬진강과 관련된 교통로를 감시할 목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지역이 섬진강 수로와 내륙 교통로를 통해 장수·장계분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 장수지역에 위치한 가야세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추정되고 있다.

진안 망바위 봉화, 금강유역 백제의 동향을 살피다

조명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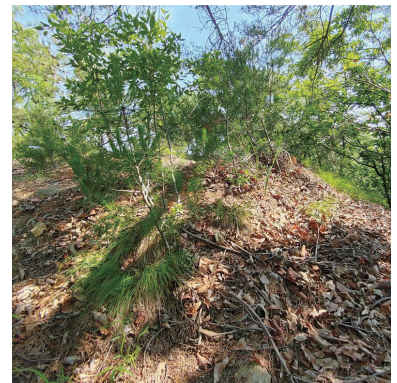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도라마을 서북쪽에 우뚝 솟은 암봉(巖峰)은 ‘망바위’ 또는 ‘치마바위’라 불린다. ‘망바위’라는 지명은 암봉의 정상에 주변지역을 관망하던 봉화가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이를 증명하듯 망바위의 정상부에는 봉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망바위에 오르면, 북쪽으로 충남 금산군 남일면 일대까지 조망되고, 서쪽으로는 용담댐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남쪽으로는 운장산을 중심으로 한 금남정맥의 산줄기와 진안고원 일원이 조망되며, 동쪽으로는 무주군 부남면 일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특히 망바위의 북쪽에는 진안군 안천면과 무주군 부남면을 곧장 이어주는 금남정맥의 큰 고갯길인 ‘굴고개’가 있다.

망바위 봉화는 북쪽으로 지장산 봉화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능금리 국사봉 봉화와 대응된다. 이 봉화로(烽火路)는 충남 금산군을 시작으로 진안 성치산-옥거리 봉화산-지장산-망바위-능금리 국사봉-문필봉 봉화를 거쳐 전북지역 가야세력의 중심지로 알려진 장수군으로 이어진다. 특히 백제의 토성으로 알려진 와정 토성과 가야와 백제 토기가 출토된 황산리 고분군, 가야의 대산성(帶山城)으로 비정되고 있는 월계리 산성이 인접되어 있어 상호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바위의 전체적인 형태는 원뿔형으로, 동쪽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며, 서쪽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룬다. 바위의 정상부는 인위적으로 평탄하게 다듬어졌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이며, 직경은 11m 내외이다. 정상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높이 50cm, 폭 100cm 내외의 토단(흙으로 쌓



망바위 봉화와 지장산, 용담호 일원



정상부 서쪽 가장자리 토단(방호시설)



정상부 산화된 석재

은 단)이 둘러져 있다. 이 토단은 봉화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시설로 추정된다. 토단을 두른 평탄지 중앙에는 불에 그을린 몇 매의 석재가 남아있는데, 불을 피웠던 봉화시설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바위 봉화의 형태 및 구조, 축조기법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육안 상 드러난 현황을 통해 볼 때,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 토기가 출토된 임실 봉화산 봉화의 구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 가야의 섬진강으로 진출하다. 순창 생이봉 · 채계산 봉화

허 건 전북문화재연구원

순창군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삼국시대 봉화는 2018년 ~2019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봉화들은 그 축조기법과 봉화로 배치양상 등을 토대로 삼국시대 장수군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 세력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섬진강의 본류가 지나는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봉화를 시작으로 섬진간의 지류인 오수천을 따라 채계산 봉화→말무재 봉화→생이봉 봉화→함미성 봉화를 거쳐, 임실 노산 봉화로 이어지며, 여기에서 동쪽으로 방향으로 틀어 장수 봉화봉 봉화로 연결된다.

2020년 순창군에 위치한 봉화 중 생이봉 봉화와 채계산 봉화를 대상으로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 11번지(해발 530m)에 위치한 생이봉 봉화는 시굴조사만이 이루어졌는데, 봉화의 기반부 일부만이 처음 쌓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6·25 전란 때 참호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계산 봉화는 ‘화산’이라 불리는 채계산 정상부에서 동북쪽으로 300m 가량 떨어진 해발 342m 봉우리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 166-3번지에 해당된다. 봉화에 오르면, 채계산의 서쪽을 감싸고 이르는 섬진강 본류와 순창군 적성면 일대가 한 눈에 조망된다. 봉화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봉화시설과 봉화군의 생활 공간의 존재가 일부 파악되었다. 봉화시설은 자연 암반을 다듬어 봉화대를 조성하고, 그 중앙부에 오목하게 파내어 봉화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이봉 봉화대 전경



채계산 봉화대 전경

생이봉 · 채계산 봉화를 비롯한 순창군의 봉화는 전북 가야의 섬진강 진출과정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삼국시대 섬진강을 두고 대립했던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라 여겨진다.

서해방어의 요충지 김제 길곶 봉수

송 종 열 조선문화유산연구원

길곶 봉수(吉串烽燧)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소재의 봉화산(해발 84m)에 위치한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사이로 서해에 고개를 내민 듯한 봉화산은 새만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말의 진포해전 및 임진왜란 당시 만경 평야등 호남의 곡식 창고를 방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길곶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된 조선시대 5봉수로 중 제 5거루트(순천 돌산도~서울)의 직봉으로, 부안 계화도 봉수를 받아 군산 사자암 봉수로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했다.

2019년에 김제 길곶 봉수의 정비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봉수의 석축 연대와 출입시설, 방호(주변을 두른 도랑), 집석유구, 소성유구, 수혈 등의 시설이 확인되어, 전북지역 최초로 봉수대의 형태와 구조, 잔존규모 등 정확한 현황을 밝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봉수대의 중심시설인 연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길이 13.3m, 폭 10.7m의 기초부를 시설한 후 산돌을 이용하여 1m 가량 들어 면석을 쌓았다. 최대 2단의 면석이 남아있으며, 면석 틈새와 내부는 잡석을 채워 넣어 축조하였다. 규모는 길이 11.6m, 너비 8.8m, 잔존높이 2.3m로 남아있다. 연대의 남서쪽 모서리에는 기초부와 이어진 출입시설이 확인된다.

봉수대의 방어와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인 방호는 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단면 'U'자 형태로, 바닥 면에는 5~20cm 정도의 작은 기둥구멍 등이 확인된다.

유물은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청자편, 분청사기와 백자편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부터 봉수대가 운영되었



김제 길곶 봉수(복원도)와 새만금

음이 명확해져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곳의 위치가 가진 역사성이 높이 평가된다.

길곶 봉수는 연대의 외곽에 방호(防禦) 시설을 갖춘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만 길곶 봉수 발굴조사에서 연대와 방호 등 봉수대의 중심시설은 확인되었지만, 봉수대는 연대 이외에 연조, 주거시설, 발화시설 등 보조 시설도 함께 구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없이는 봉수대의 정확한 형태와 규모 등의 현황과 성격을 논하기 어렵다.

향후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서해안 봉수대의 구조와 형태, 운영체계 등 조선 시대 봉수의 구조 및 운영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값진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길곶 봉수는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호남평야와 서해 조망권이 탁월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향후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안 봉수를 리트윗하다, 부안 점방산 봉수

박영민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부안 점방산 봉수는 변산반도의 중심을 이루는 변산(해발 508m)에서 북서쪽 서해 방향으로 짧게 돌출한 해발 77m의 낮은 산봉에 입지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봉수대이다. 봉수대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51번지에 해당한다. 봉수대 정상에 서면 남서쪽의 격포항과 서쪽의 비안도, 북쪽의 계화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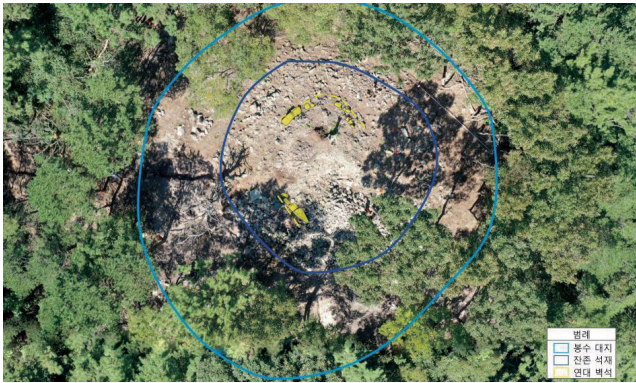
점방산 봉수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짧게 전해지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전주 부안현조에는 “...봉화가 3곳이니, 현(부안현)의 서쪽 월고이(남쪽으로 무장 소응포에 응하고, 북쪽으로 점방산(占方山)에 응한다)·점방산(북쪽으로 계건이(계화도)에 응한다)·계건이(북쪽으로 만경 길곶에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부안현에는 월고리 봉수, 점방산 봉수, 계화도 봉수의 3개 봉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월고리 봉수는 남쪽으로는 고창군의 소응포 봉수, 북쪽으로는 점방산 봉수와 응하고, 점방산 봉수는 남쪽으로 월고리 봉수, 북쪽으로 계화도 봉수와 응하며, 계화도 봉수는 남쪽으로 점방산 봉수, 북쪽으로 김제 길곶 봉수와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점방산 봉수는 고종 31년(1894) 팔로봉수, 다음 해 각 지역의 봉수와 봉수군의 운영이 폐지되면서 함께 폐기되었다.

점방산 봉수의 학술조사는 몇 차례의 지표조사를 제외하면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봉수의 규모와 형태, 축조기법 파악을 위한 시굴조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다. 시굴조



점방산봉수와 주변 봉수



점방산 봉수 범위



점방산 봉수 연대 전경

사 결과, 봉수대는 길이 33m, 너비 30m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의 평면형태이고, 그 내부에 연대, 거화시설, 연조, 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대는 그 기초부가 남아 있었는데, 평면형태가 방형이고, 한변의 길이는 9.5m내외였다. 연대의 상단부 중앙에는 돌로 만든 연조가 위치하고 있었다. 연조의 주변에는 불에 탄 소토와 목탄이 흩어져 있어 불을 피웠던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봉수의 거화(炬火)시 불을 피웠던 장소인 연조는 연대의 북서쪽에도 1기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연대의 바깥쪽에서 봉수대 운용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했던 창고 1동, 봉수대 안쪽과 바깥쪽에서 봉수군이 식용자원으로 활용했던 패각무더기가 확인되었다.

봉수(烽燧)는 주연야화(晝煙夜火) 즉,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로 변경의 정세를 중앙의 병조와 지방의 각 읍과 군진에 급히 전달하는 군사통신 조직이다. 조선시대의 봉수는 봉수로의 경로를 기준으로 연변봉수와 내지봉수로 구분할 수 있다. 연변봉수는 여수에서 시작해 전라도와 충청도 해안을 경유해 서울 목멱산(남산)까지, 내지봉수는 부산에서 시작해 내륙을 경유하여 서울 목멱산까지 운영되는 봉수이다. 특히 연변봉수는 비상시 상황에 따라 5기의 거화시설을 운영했고, 외적이 침입이 빈번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봉수를 운영하던 군대인 봉수군이 상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변봉수는 내륙에 위치한 내지봉수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시설이 복잡한 특징이 있다.

부안 점방산 봉수는 비록 한차례의 시굴조사만 이루어

졌지만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구조와 형태를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봉수인데, 그 중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수는 안쪽과 바깥쪽에 외적을 방어하는 2중의 방호벽을 갖추고 있고, 연대, 거화시설, 연조, 창고 등의 시설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봉수의 규모와 형태,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연대 한 변의 길이가 9.5m였는데, 연대의 이와 같은 규모는 봉수의 축조규범을 기록한 세종실록의 '연변연대조축지식'의 기록과 부합하고 있어 조선시대 전기 연변봉수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불과 연기를 직접 피웠던 시설인 연조가 2기 이상 발견되어 비상시 경중에 따라 봉수의 갯수를 달리해 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기록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봉수 주변에서 패각 무더기가 흩어져 있었는데, 봉수군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부안 점방산 봉수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정받아 비록 시굴조사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20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향후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시대 전기 봉수의 구조 복원뿐 아니라 봉수군의 운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모에서 10월상달 마을시제를 지내는 성산리사람들

송 화 섭 중앙대학교 한국사 교수

성산리는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를 가리킨다. 성산리(城山里)는 한자 표기처럼 산성(山城) 마을이다. 성산리는 군사적 요새에 쌓은 성곽때문에 생겨난 마을이다. 성산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성곽이 합미성이다. 합미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팔랑현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팔랑현(八良峴)은 팔랑치(八良峙)와 동의어인데, 팔랑치는 신라와 백제의 경계였다. 팔랑치는 백제에서 신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고갯길이다. 그 팔랑치에 합미성이 위치하고 있다. 합미성은 신라가 백제와 전쟁에서 군사적 요충지에 쌓은 테머리식 성곽이다. 성곽은 크게 포곡식과 테머리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포곡식은 골짜기를 품고 있는 산성이라면, 테머리식은 산 정상 부근에 머리에 테를 두른 형태의 성곽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성곽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산리의 합미성은 가야시대의 성곽이라는 주장이다. 성산리에서 오봉산 넘어 아영면 두락리 유곡리 일대에는 가야시대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이 웅거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야계 고층 고분군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최근 두락리 고분을 발굴한 결과, 백제계 금동신발 등이 출토되어 강력한 가야세력이 웅거

하였다는 단서를 찾았다. 역사고고학자인 군산대학교 객장군 교수는 이 두락리 유곡리 가야세력이 기문국(己汶國) 세력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기문국 세력이 성산리 합미성을 쌓았다. 신라 진흥왕 23년(562)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성산리 합미성도 신라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운봉고원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백제 무왕은 아막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세차례에 걸쳐 신라 진평왕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그때 아막성의 후방 군사보급기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 합미성일 수 있다. 성산리의 서정갑(83세)씨는 합미성(合米城)은 군량미(軍糧米)를 모아놓았던 산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합미성이 삼국시대부터 사용해진 지명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성산리 마을사람들은 합미성 외에 다른 산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산리 마을의 역사는 가야가 신라에게 멸망하는 560년경까지 올라 갈 수 있다. 그 당시 군인들이 상주하였던 산성마을이 오늘날 성산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성산리처럼 고지대의 산성 옆에 마을이 조성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성산리는 판소리계 소설 홍보전의 발상지이다. 성산리



남원 인월면 성산리(산성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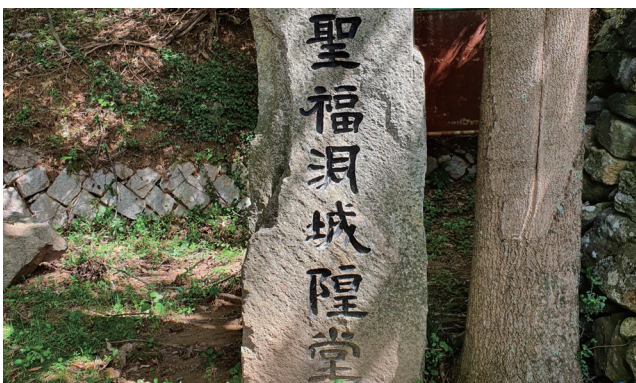
팔랑치 고개에 위치하는 합미성

는 홍보가에 등장하는 성현동이다. 홍보가, 홍보전에는 성현동(城峴洞)과 복덕촌(福德村)이 등장한다. 놀보와 홍보가 중년(中年)에 성현동에 들어와 함께 살다가 홍보가 돼지 새끼냥듯이 자식새끼들만 퍼 놓고 곡식을 축내자 심술사나운 놀보가 홍보를 제금을 낸다. 판소리 사설에는 홍보가 제금난 후에 살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성현동 복덕촌이라고 하였다. 복덕촌은 성현동에 속한 자그마한 마을이다. 성현동은 천석군, 만석군이 살았다는 부촌(富村)이라면, 복덕촌은 주막거리에 위치하는 가촌이었고 빈촌(貧村)이었다. 홍보가 쫓겨나면서 살집이 없어서 물방앗간에서 자기 안방처럼 잠시 살았다. 그 물방앗간이 성현동 아래 골짜기에 위치했었다. 성현동은 지금의 성산리이지만, 복덕촌은 주막거리에 네다섯 가호 집들이 가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홍보전 사설에 홍보가 주막거리에서 외상술먹고 내기 율놀이한다고 놀부에게 편잔을 듣는 대목이 있는데, 복덕촌에는 실제 주막거리가 있었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주막거리가 해체되면서 복덕촌사람들도 떠나고 지금은 성산리 사람들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산리 사람들은 성현동보다는 성북동(城北洞)을 선호한다. 성현동은 ‘성고개마을’이란 뜻인데, 성북동은 합미성의 북쪽에 위치하는 마을이라는 지명이다. 거의 모든 홍보가 사설에는 성현동 복덕촌으로 표기되어 있다. 성산리 마을입구에는 ‘聖福洞 城隍堂’ 표지석이 있는데, 이 표지석은 1993년대 초에 홍보전 발상지 고증 연구용역을 맡았던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자문하여 성북동 지명을 새겼다. 1960년경 일부 홍보가 사설에는 성현

동(聖賢洞)으로 등장하고 있다. 성현동은 성현동(城峴洞)의 오기(誤記)인데, 판소리계 소설들이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졌기에 지명의 한자 표기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홍보전이 조선 후기의 작품임에도 사료(史料)의 가치를 얻지 못한 것은 한글로 쓰였기 때문이다. 성현동(聖賢洞)은 성현동(城峴洞)으로 써야 맞다. 성현동과 복덕촌의 앞자를 떼어서 성북동(聖福洞)으로 만들었는데, 성북동(城北洞)과 전혀 맞지 않는다. ‘聖’자가 아닌 ‘城’자라면 시늉이라도 낼 터인데, 성북동은 정체불명의 족보도 없는 지명이다. 하루 빨리 원래의 마을지명인 성현동, 성북동으로 다시 새겨넣기 바란다.

성현동과 성북동의 좌표는 합미성이다. 합미성은 팔랑치(八良峙)에 위치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팔랑현(八良峴)이라고 기록되었으나 팔랑치와 동의어이다. 팔랑치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다. 경상 전라의 도계(道界)를 좀더 좁혀보면 운봉과 함양의 경계이다. 실제 홍보가 사설에 “운봉 함양 두얼품에 중년(中年)에 박가 형제가 있었으되 놀보는 형이요, 홍보는 아우인데”라는 대목이 나온다. 운봉 함양 두얼품에 팔랑치가 있고, 팔랑치 정상에 합미성이 있다. 합미성이 두얼품에 위치한다. 운봉 함양 두얼품은 팔랑치 합미성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두얼품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합미성의 서쪽 성벽을 경계로 인월 성산리와 함양 죽림리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두얼품을 경상전라양도지경(慶尙全羅兩道之境)이라 하였다. 실제 행정구역 상 합미성은 함양땅이다. 함양군에서 설치한 합미성의 안내판에는 팔령산성(八嶺山城)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잘못된 표기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팔랑치와



잘못 표기된 성북동의 마을표시석



박홍보 부부의 묘



동네박첨지묘역



시월상달 동네박첨지묘사

홍보전의 관련성은 『전북문화살롱』 10월호 살롱포커스에 “판소리계 소설 홍보전의 성현동과 복덕촌을 찾았다.”에서 상세하게 밝혀놓았다.

운봉 함양 두얼품인 성산리에서는 홍부놀부 이야기보다 박첨지 형제이야기가 더욱 실감있게 들려온다. 서정갑(83세) 씨가 들려두는 박첨지 형제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실제 살았던 실존인물이야기였다. 그런데 박첨지 형제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자연스럽게 홍보전과 연상(聯想)될 수 밖에 없다. 홍보전의 발상지인 성산리에서 홍보, 놀부 이야기는 전해오지 않지만, 박첨지 형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박홍보 형제 이야기는 박첨지 형제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의 스토리 전개라는 심정적 공감에 이르고 더 나아가 확신을 갖게 만든다. 박첨지(朴僉知)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朝鮮時代 中樞院 正三品 堂上官職名)의 관직을 매관매직하여 성(姓)에 첨지를 붙여서 양반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첨지는 홍보전이 조선 후기 세도정치 때에 쓰여졌다는 상징적 호칭이다. 따라서 박첨지의 본래 이름은 박놀부(朴耄甫)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첨지가 홍보전의 놀부, 홍보처럼 중년에 형제가 성산리에 들어와 살았다.

성산리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10월 상달에 마을시제를 공동으로 지내고 있다. 성산리에서 남동쪽 도장골 마을공동산에 시제지내는 묘역이 마련되어 있다. 묘역에는 박홍보지묘의 묘비석과 두 봉분이 상단에 위치하고, 하단에는 6기의 민묘가 같은 크기로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서정갑(83세) 씨에 따르면, 원래 도장골에는 홍보

묘가 있었고 동네박첨지묘사를 지내오다가, 20년전에 오봉산 가메골에 있는 홍보처의 묘를 이장하여 홍보와 합장하였다고 한다. 하단의 6기는 3기는 홍부 아들묘이고, 나머지 3기는 마을에서 연고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묘라고 한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자손없이 돌아가신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묘를 조성하여 관리해오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마을 공동으로 무연고자가 소유하였던 전답은 마을전답으로 관리하고 한꺼번에 10월 상달에 묘역에서 시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성산리에는 무연고자들이 남긴 전답이 약 8마지기 정도가 있다. 이 전답은 마을이장이 경작하게 관례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장례 풍속에서 조상제사는 4대조까지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설과 추석에 제사의 대상이지만, 5대조 이상의 조상들은 농사철이 모두 끝난 후 10월 보름을 전후하여 무덤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시제(時祭)를 지낸다. 성산리 주민들은 시월 보름 상달고사의 마을시제를 언제부터 지내왔는지 모른채 대대로 해왔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시제는 문중, 가문 별로 음력 10월 상달에 지내는게 일반적 관행인데, 성산리에서 마을시제의 발단은 동네박첨지네묘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정갑(83세)은 박첨지가 동생과 함께 중년에 성산리에 들어와 살았는데, 박첨지부부는 아들이 없었지만, 동생은 8명이나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도장골에는 처음에 박첨지 동생 묘가 하나 있었는데, 박첨지 동생의 처 무덤까지 이장해와 합장하였다. 성산리 마을주민들은 시월상달 동네박첨지묘사를 지낼 때에 박



시월상달 동네박첨지묘사 장면



박첨지 형제 이야기하는 서정갑(84세)

첨지 동생 아들들의 무덤이 성산리 마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었고, 마을사람들이 지게바작에 제물을 차려서 짚어지고 무덤을 찾아다니며 묘사(墓祀)지내는 방식으로 해왔다. 성산리 주민들은 마을시제를 앞두고 별초 등 묘지 관리하는데 번거롭고 일품이 많이 들어, 10여년 전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박첨지집안의 묘를 모두 이장시켜 도장골에 묘역을 조성하고 마을시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서정갑(83세) 씨는 옛날부터 ‘동네박첨지묘사’라고 불려왔고, 시월 상달에 마을주민 공동으로 시제를 지내왔다고 말한다. 마을주민들은 자신 문중의 시제도 지내지만, 시월 상달 박첨지묘사의 주 대상은 홍보묘 제사이다. 예부터 성산리에서는 홍보묘비를 세우고 홍보묘사를 지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마을에서는 동네박첨지묘사라 하였고, 그동안 한번도 거른 적이 없다고 한다. 1993년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에서 실시한 홍보전 발상지 고증 용역에서 엉뚱하고 왜곡된 용역 결과를 내놓아 홍부놀부 마을이 인월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 두 곳으로 쪼개지고 말았다. 인월 성산리는 홍보전의 발상지라 하였고, 아영면 성리는 홍보전의 발복지라고 하였다. 발상지(發祥地)는 학문적인 명분을 갖지만, 발복지(發福地)는 풍수지리적 용어로서 학술적으로 사용하기가 적절치 못하다.

필자는 홍보전의 발상지는 인월면 성산리가 맞다고 본다. 그 근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홍보전에서 홍보, 놀부가 살았다는 성현동 복덕촌이 성산리에 실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보가, 홍보전의 성현동 복덕촌의 현장이 실재하기 때문에 홍보전의 근원설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성현동 복덕촌에서 홍보 놀부의 향촌생활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홍보가 사설에서 홍보집이 팔량치 밑에 복덕촌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복덕촌은 주막거리에 위치하는 강촌마을이었다. 성산리가 홍보가·홍보전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홍보가 사설과 문헌 자료와 합미성 유적과 지명과 마을주민의 증언이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다. 1993년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에서 홍보전 고증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왜 고증 결과가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근래 남원시의 요청으로 10여년 전부터 인월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 마을이 격년제로 음력 중양절(음9.9)에 홍부묘제를 지내고 있다. 올해에는 10월 25일에 아영면 상성마을 홍부묘에서 제28회 홍부고유제를 지냈다. 성산리에서는 춘보묘라고 알려졌는데 왜 홍부고유제를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산리 마을주민들은 남원시의 시행지침과 관계없이 시월상달이 되면 마을시제로 동네박첨지묘사지내는 것을 한번도 거른 적이 없다. 구전을 근거로 박첨지는 놀부가 맞지만, 박첨지의 동생 집안의 무덤까지 아울러서 박첨지 집안의 시제를 지내고 있다. 성산리 마을의 동네박첨지묘사는 역사적 전통성을 갖고 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춘보묘가 홍보묘로 바꿀 수는 없다. 마을 주도의 시제를 관청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마을전통의 전승문화가 왜곡되어서도 안되지만, 정치행정의 이유로 변질,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판소리계 소설 홍보전의 무대도 바로잡아야겠지만, 성산리 사람들이 마을전통으로 지내오는 시월상달 동네박첨지묘사가 물흐르듯이 지속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방언의 발음 ‘뫼(뫼)’

장승익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타지역 출신 선생님께서 이 지역에서 오래 지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다. 전북 사람들은 요일을 물을 때 “뫼 요일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뫼’는 보통 ‘뫼 명, 뫼 시’처럼 숫자를 이룰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요일’은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닌데 이 지역에서 왜 ‘뫼 요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뫼 요일’이라는 표현이 우리 지역에서만 쓰는 말인 것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이리저리 찾아 보니 전라도 전역, 그리고 충청도 일부에서 ‘뫼 요일’이 쓰인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 표현에 대한 갑론을박, 정말 이 지역에서만 쓰느냐며 놀라 하는 반응도 심심찮게 보였다. ‘요일’이 주로 ‘월, 일, 시’와 같이 어울려 사용되다 보니 ‘뫼 월, 뫼 시’에 이끌려 ‘뫼 요일’이 되었겠다는 추측을 해 보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뫼 요일’이 요일을 가늠하는 이 지역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이번 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뫼’이다. 중앙어에서 ‘뫼’가 들어 있는 들어 있는 단어들이 전북 방언에서는 대부분 ‘꺄’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전북 방언에서 ‘경우’는 ‘꺄우’로, ‘머느리’는 ‘메누리’로, ‘벼슬’은 ‘베슬~베실’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거이 머 뫼 천 년이나 남은 것도 아닝게, 쇠여올네, 어디로 가서 살든지 소식 끊지 말고 그날을 지달리고 있으시오.

1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뫼’가 아니라 ‘뫼’인 듯하다. ‘식구가 뫼이냐?’라는 문장을 말할 때, [메치냐]보다 [메시냐]로 발음하는 것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종성의 ‘ㄷ, ㅌ’ 등이 ‘ㅅ’으로 바뀌는 경향이 확인된다. ‘꽃을 준다’라고 할 때 [꼬슬]로 발음하거나, ‘밭이 멀다’를 발음할 때 [바시]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최명희, 혼불〉

- 하하. 전라도에 오시더니 대변 사투리가 나옵니다그려. 뫼 군데 찾아 다니다가 그거 달랑 하나 남은 것을 가져왔는데 맞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만식, 인형의 집〉
- 양푼으다가 밀가루를 담아서 아, 깨끗한 한지로 덮어 뫼는디 지사 끝남서나 열어봉게 거그에 뫼 마리나 되는 새 발 자국이 찍혀 있더랍데. 〈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 바로 그 순간 부부는 단둘이라는, 어쩌면 유행가 가사 비슷한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시방 뫼 시여?” 〈윤희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 내려온게 뫼 월 메칠날 내려온다는 사신(使臣)이 와 갓근 내려 닥쳐서 뫼 허니 들어와 봉게, 하참 으리으리허지.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이는 ‘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앙어에서 ‘꺄’가 들어 있는 들어 있는 단어들이 전북 방언에서는 대부분 ‘꺄’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전북 방언에서 ‘경우’는 ‘꺄우’로, ‘머느리’는 ‘메누리’로, ‘벼슬’은 ‘베슬~베실’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버꾸 같은 양반아, 그러니께 그런 꺄우일시락 악착같이 더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고 나가 섯바닥에 물집이 잡히드락 수도 없이 옮겨뫼잘예! 〈윤희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 시아버니가 가만히 생각헌게 으떻게 허서 된 속인가는 몰라도 자기 인기는 떨어지고 메누리한티만 뫼를 전부 물러오고, 아 메누리가 뫼를 말허머는 그냥 죄다 손님이 메누리 얘기만 듣고 가고 가고 그런단 말요.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 시방 짚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게 또 한 정승 베슬 큰 베 실을 하고 있는 사람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 군편>

이러한 현상은 ‘모음 축약’의 일종이다. ‘축약’이라 하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음 ‘ㄷ’ 하나가 다른 모음 ‘ㄱ’로 바뀌는 것을 왜 축약이라 하는지 궁금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ㄷ’는 이중모음이고, ‘ㄱ’는 단순모음이기 때문이다. ‘ㄷ’를 발음해 보면 입 모양이 바뀐다. 처음에는 ‘ㅣ’를 발음하는 듯하다가, 나중에는 ‘ㄷ’로 끝난다. 이때 처음에 짧게 발음하는 ‘ㅣ’를 흔히 반모음이라고 부른다.² 그러니까 ‘ㄷ’는 하나의 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모음(ㅣ)’과 ‘단순모음(ㄷ)’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ㄱ’는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바뀌지 않는 하나의 소리이다. 두 개의 소리를 가진 이중모음이 하나의 소리인 단순모음으로 바뀌었으니 이를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약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이는 반모음 ㅈ 때문이다.³ 반모음 ㅈ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뒤따르는 ‘ㅣ’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갈아질 때까지 당기지는 못하여 ‘ㅣ’와 가까운 소리인 ‘ㄱ’로 바꾸게 하였다. 중국에는 반모음 ㅈ도 탈락하고 말아 ‘ㄱ’만 남게 된 것이다.

전북 방언에서 ‘ㄷ>ㄱ’ 모음 축약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동사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축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어에서는 ‘ㅣ’로 끝나는 어간과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여’로 바뀐다. 가령 ‘먹이다’는 ‘-어’와 결합하면 ‘먹여’가 되고, ‘벗기다’는 ‘벗겨’가 된다. ‘드리다, 가르치다, 숨기다’도 각각 ‘드려, 가르쳐, 숨겨’와 같이 활용한다. 그런데 전북 방언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예를

적잖이 확인할 수 있다.

- 먹였어>멕였어: 그놈을 다 깨물라 멕였어. 멕인께 인자 정신을 차려서 일어난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 벗겨>벧겨: 허, 자네 참말로 인자 봉게 비우 좋고 수완 좋네그려. 얼음판에다 꺾 벧겨 놔도 살아날 사람 아니라고.<조정래, 아리랑>
- 드리라>디레라: “나는 뒷간에 쪼개 갔다 와서 쓰겠다. 술국도 더 떠다 디레라.” 쟁우댁은 팔랑팔랑 밖으로 나갔다.<송기숙, 녹두장군>
- 가르쳐>갈쳐: 바느질도 갈쳐 주지도 아녀.<지역어 조사, 2005, 남원>
- 숨겼는가>싱켰는가: 아까도 기양 사리반 서방님이 그으 살갑게 주고 가신 돈을, 눈 깜작 새 잡어채 갖고는 어따가 싱켰는가 날름 좇어 생게 불고, 어디 주뎡이 씻은 자리도 없드랑게요.<최명희, 혼불>

모음 축약에 의해 ‘ㄱ’이 된 소리는 이제 고모음화하여 ‘ㅣ’로 바뀔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며느리’는 전북 방언에서 ‘메누리’를 거쳐 ‘미누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양반 영감이 그놈을 욕심내서 미누리로 시켜 얻으라고 욕심을 내. 막 인자 그런개 인자 영감은 본 디가 있어서, 그 미누리로 복있게 생기고 아주 큰 아들 낳게 생겨서 쌍놈을 며느리로 얻으라고 허는디, 억지로 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2 단순모음 ‘ㅣ’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반모음을 주로 ㅈ로 표시한다.

3 이것은 모음 ‘ㅣ’와 그 성격이 매우 비슷하여, 종종 동일한 음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가령 일전에 다룬 적이 있는 ‘옴라우트’나 ‘구개음화’도 모두 ‘ㅣ’ 또는 반모음 ㅈ 때문에 일어난 음운 현상들이었다.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사대부의 전반기 서가(書家)와의 관계

- 『쇄미록』 가족관계4

김연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번 글은 『전북문화살롱』 지난 6월 호부터 9월 호까지 작성된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사대부의 외가, 처가, 매가의 관계'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전반기에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오희문이 서가(書家), 즉 사위와 맺었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은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1592년 4월) 전라도를 남행(南行)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 전북 장수에서 약 6개월 동안 피란하였다. 이후 10월에 가족들이 충남 예산의 김매(金妹, 김지남에게 시집) 댁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온 뒤부터는 정유재란(1597) 전까지 약 20여명의 식솔들과 함께 예산, 홍주(홍성), 임천 등 충남 지역을 전전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임천은 1593년부터 1596년까지 4년간 오희문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곳으로, 그 중심에는 오희문의 첫째 사위이자 아들 오윤겸(吳允謙, 1559-1636)과 절친했던 함열현감 신응구(1553-1623)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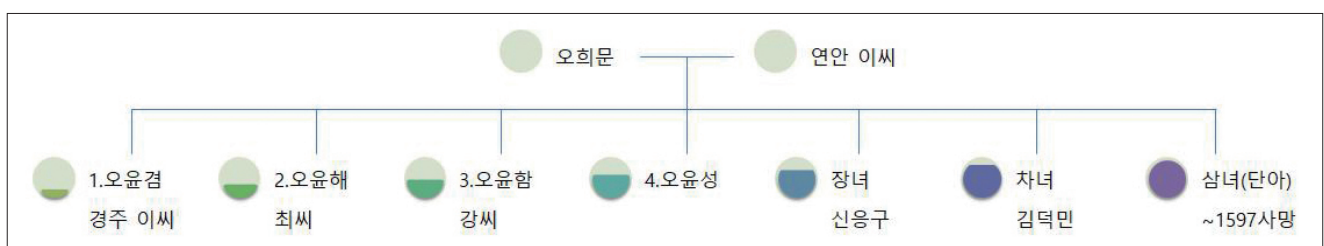
1592년 9월 30일 전북 장수 관아에서 피란하던 오희문은 처자식들이 생존해서 예산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10월 8일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으며, 약 6일 후인 13일에 홍주 사곡(蛇谷)에 있는 첨사 이연실의 사내종 돌시(扈屎)의 집에서 식구들을 마주하였다. 이후 위아래 식구들이 너무 많아 한집에 머물 수 없었기에 사인(士人) 이광복(李光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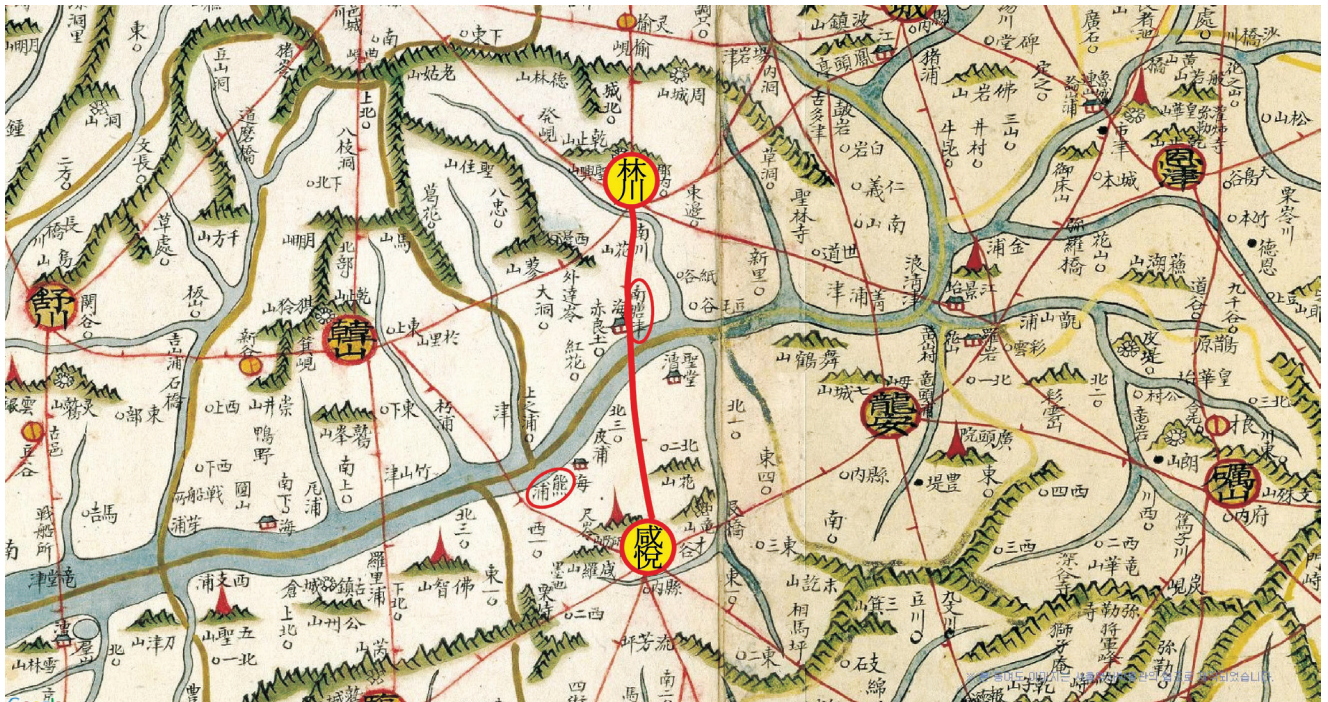
사랑채를 빌려 잠시 거처하다가 10월 18일에 홍주에 있던 서당에 흠집을 짓고 마구간을 만들어 이사하였다. 그곳에서 겨울을 난 뒤에 식량난으로 고생하던 오희문 가(家)에 서신 한 통이 날아든다.

함열현감(咸悅縣監) 신공(申公, 신응구)이 사람을 보내 문안하고 참봉(오윤겸)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형의 집일을 한 번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굶주림과 배부름을 함께하고자 하니 즉시 가까운 곳으로 와서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으니, 후하다고 할 만하다.(1593.5.11)¹

1593년 5월 11일, 바로 아들 오윤겸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이니 함열 근처의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여 동고동락하자는 함열현감 신응구의 편지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6월 21일, 오희문은 식솔을 이끌고 임천(林川) 소지(蘇鷺)의 빈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물론 전부의 이유는 아니었을지라도 당시 오희문의 기록에 계속해서 곡식과 음식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함열현감의 영향으로 거주지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함열과 임천의 거리는 도보와 배편을 이용하여 편도로 만나질 정도가 걸릴 정도로 멀지 않았다(그림 2). 이

1 『(국역)쇄미록』 권2, 진주박물관, 2018, 84쪽





〈그림 2〉『동여도』 임천·함열 지도

후 신응구는 임천으로 이사 온 오희문 가에 백미, 조, 콩, 조기, 간장, 조개젓, 미역 등의 다양한 음식과 신발, 종이 등의 생필품을 다량 지원해주었으며 편지를 보내 안부를 살피고 자주 왕래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희문은 함열현감에 대해 지극히 고마움을 내비치고 있다.

양식을 구하는 일로 함열현감에게 막정(奴)을 보냈다. 함열현감은 비록 윤겸의 친한 친구라지만, 나에게서는 본래 친속도 아니고 일찍이 알던 사이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을 대접함이 남들에게 하는 것보다 지극히 후하여, 한 달 안에 두세 번 사람을 보내서 부탁해도 전혀 난색을 표하지 않았다. 한집 10식구의 목숨이 오로지 여기에 힘입고 있으니, 이 큰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그저 깊이 감사할 뿐이다.(1594.2.23일)²

이처럼 당시 오희문의 식구는 신응구에게 경제적으로 깊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때는 아직 신응구가 오희문의 사위가 되기

전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1594년 2월 23일 기록 당시 신응구는 후처(後妻)와 함께 함열 관아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희문도 서술했듯이 친속도 아니고 일찍이 알던 사이도 아니었지만 아들 윤겸 친구의 인연으로 목적 없이 오희문 가에 선의를 베푼 것이다.

그러나 신응구는 바로 다음 달인 3월 4일에 부인의 초상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8월 13일 오희문의 만팔과 세 번째 혼인(三婚)하게 됨으로써 오희문 가와 두터운 인척관계를 형성하였다. 혼례식 전까지 신응구가 오희문가에 전송한 양식은 총 34회로, 이는 1달에 5~6회 정도에 해당되는 상당한 양이었다. 함열 현감은 둘째 부인이 별세한 뒤에 일찍이 오희문 가(家)와 혼담이 있었고 “이미 얼굴을 보며 약조를 했다.(1594.6.27)³고 하여 구두로 혼약을 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오희문을 도왔던 것이다.

오희문은 사흘 뒤에 관상감 관원이었던 이웃 이복령(李福齡)에게 길한 날을 점쳐 8월 13일과 9월 9일 양 일을 받아왔다. 두 날 중에서 8월 13일이 더 길하다 하였지만 준비에 무리가 있어서 9월 9일로 택일을 의논하였다. 그러

2 『(국역)세미록』 권3, 진주박물관, 2018, 52쪽

3 『(국역)세미록』 권3, 진주박물관, 2018, 1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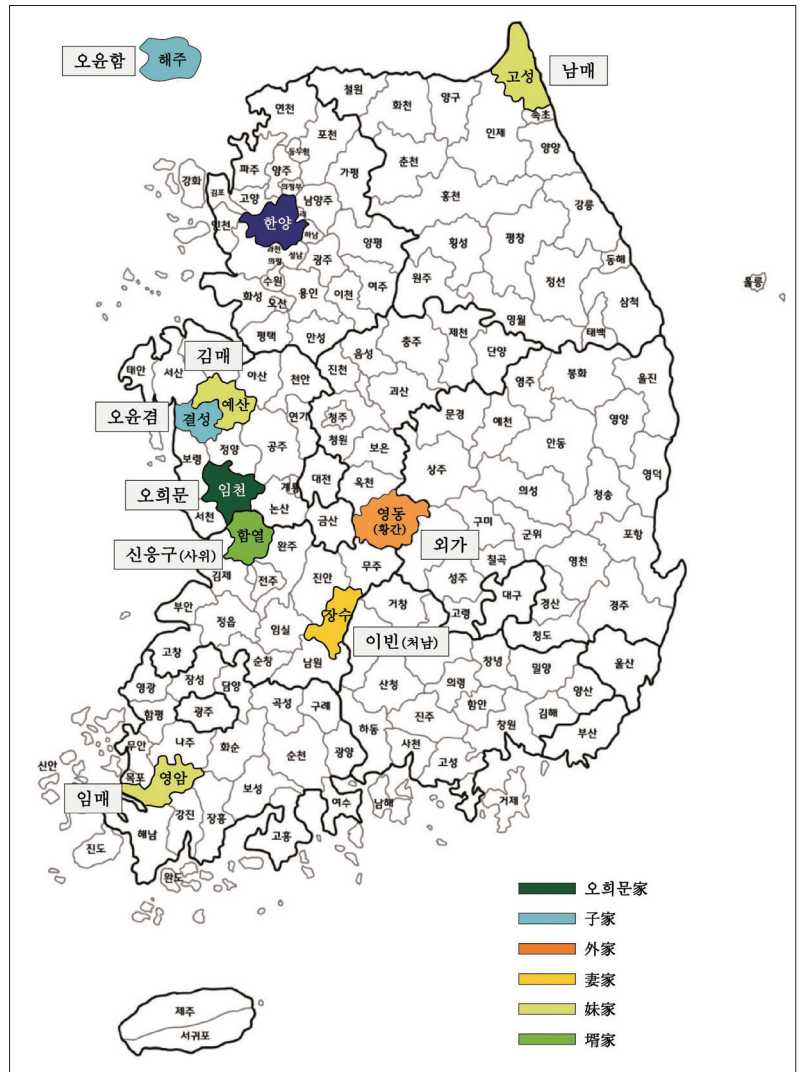
나 왜적이 다시 물러올 수 있으니 혼사를 빨리 거행했으면 좋겠다는 함열현감의 모친(해평윤씨) 의견에 따라 앞당기되, 예식 때 갖출 물품을 억지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초례만 올리는 식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희문 집에서 전날인 12일까지 혼사에 쓸 기본적인 제반도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함열현감이 침석(寢席)과 함께 동뢰연에 쓸 방석 2개, 육축 1쌍 등을 구하여 보내주는 등 혼전부터 비용적인 부담을 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었다. 아마 전란기 상황 속, 오희문가의 금전적 필요성과 신용구의 가정적 안정화 요구가 맞물려 신속하게 혼례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위가 된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물자를 원조해주었으며, 부인이 된 장녀(長女)도 함열(咸悅)에 있으면서 친정을 살뜰히 챙겼다. 1596년에는 3월부터 오희문의 막내아들인 오윤성의 혼사가 추진되었는데, 의혼(議婚)부터 납폐(納幣) 때 사용하는 현혼(玄纁)과 가죽신 등의 물품 준비 및 혼례식 당일까지도 신용구가 대부분의 일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오희문의 일기에 “이러저러한 모든 일을 모두 자방(신용구)이 조치하고 준비했다.”⁴⁾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그 현장을 체감할 수 있다.

이후 1596년 10월 평강현감으로 발령이 난 아들 오윤검을 따라 1597년 1월 평강으로 가기 전까지 사위 함열현감 신용구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조선중기 사위와 처가와 관계 및 사위의 역할과 공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외가살이 16년	처가살이 37년	妹+婿 5년	子 4년+
1554	1591	1597	



〈그림 3〉 1594년 기준 오희문의 외가·처가·매가·서가 지역 구분

『쇄미록』에서 보여준 오희문의 기록을 종합하면 유년기에는 외가(外家, 약16년), 청·장년기에는 처가(妻家, 37년)에서 살면서 각각 고성 남씨(固城南氏), 연안 이씨(延安李氏)와 교유했고, 전란기에는 매가(妹家)와 서가(婿家)의 도움으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3). 이로써 17세기 당시 조선 사대부의 가족관계망은 친가 계통의 종적 구성만큼이나 인척 중심의 횡적 연계가 상당히 발전한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역)쇄미록』 권4, 진주박물관, 2018, 342쪽

곱덕 매매문서에 숨겨진 이야기

김도형 김제시청 학예사

앞의 글에서 곱덕 매매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두 장의 명문(明文)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왜 동일한 대상에 관한 매매문서가 이중으로 존재하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입안과 관련하여 점련되어 있는 나머지 다섯 장의 문서들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오응규가 곱덕을 매득(買得)하고 공증을 받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노비를 매입하고 입안을 받는 과정과는 좀 다르다. 곱덕이 원래 양인이었기 때문에 양인을 노비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점련된 문서를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시간적인 순서대로 재배치하면, 입안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곱덕의 아버지 최곳대의 소지와 관청의 판결문(3월 4일)
2. 매매문서 작성(3월 10일)
3. 오응규 집에서 입안 소지 작성(4월 ?일)

4. 공초 문서 작성(4월 초순)

5. 입안 문서 발급(4월 ?일)

1789년 전라도 홍덕현(지금의 전북 고창군 흥덕면) 탁곡면 월성동에 살았던 최곳대가 자매(自賣)를 허락받기 위해 관할 관청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삼가 진술하는 소지의 지극히 애통한 사정이 말미암은 일은 저 본인이 팔자가 험난하여 지난해 십이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만 팔십 늙은 아비가 있어서 외롭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불행하게 저의 아비가 몸에 병이 나서 바야흐로 죽을 지경에 있을 뿐 아니라 이에 흉년을 당하여서 삶을 도모할 길이 전혀 없어서 온갖 꾀를 내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일개 여식이 어찌 감히 부친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기를 원하는 사람



에게 스스로를 팔아서 병든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뜻이 있으되 본시 양민의 딸이라 원래 문권이 없는 바로, 감히 이에 우러러 밝게 다스리고 백성을 구휼하시는 아래에 하소연하오니, 일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세하게 헤아려 살피신 뒤에, 만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뜻으로 입지를 만들어 주는 일로 지시하도록 분부를 내려주실 일입니다.

관사님(官司主) 처분

갑진 3월 일

[제사(題辭)] 몸을 팔아 아버지를 봉양하니 지극한 정이 애처롭다. 청원에 의지하여 입지를 작성해 줄 일이다. 초4일

청원서에서 최곳대는 지난 겨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실 지경에 처한 것을 강조하면서 부친을 살리기 위해 딸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다.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딸을 팔아서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관청에서도 이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다. 3월 4일에 허락하는 입지를 발급해 주자 6일 뒤인 3월 10일에 매매문서가 작성되고 한 달 뒤인 윤3월 11일에 '최봉 명문'이 다시 한번 작성된다. 아마도 이 사이에 오재삼이 중간에서 무슨 일을 꾸몄을 것이다. 최봉은 필시 까막눈이었을 것이고 중개인의 역할을

한 오재삼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크다. '최봉 명문'에 구체적인 매매 가격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하다. 흠이 있는 매매문서이기 때문에 애초에 입안에 포함될 수 없었고 이런 이중 매매문서를 통해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최봉은 피해자였을 것이 분명하다.

1789년 18살이 된 곱덕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망을 쳤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곱덕을 판 아버지 최봉이 아닌 보증인 오재삼에게 돌아간다. 앞의 '오재삼 수기'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나중에 만일 삼가지 않고 믿음이 없는 바가 있다면 관청에 고하여 엄한 형벌로써 벌줄 일입니다.'라는 말은 약속 기한을 못 지킬 경우를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근원적인 행동에 대한 경계의 말로 보인다. 책임 소재는 그렇다고 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곱덕은 달아난 뒤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사진 출처 : 전북대박물관 소장 고문서(관리번호 고2776)





높은 가을하늘高秋

장유(張維, 1588-1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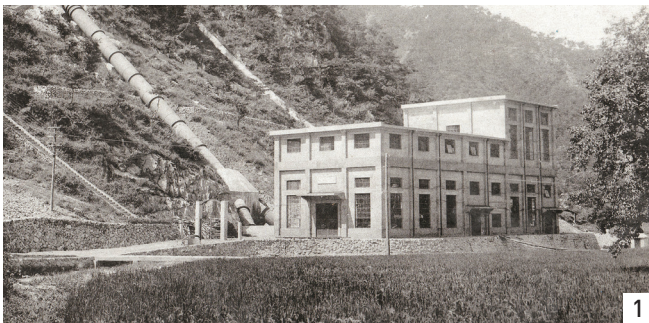
높은 가을 하늘 따라 생각은 끝이 없는데	高秋極目思茫茫
서풍을 타고 기러기 몇 마리 날아가네	強遡西風數雁行
저녁 햇빛 반사되는 단풍나무 한 그루	一樹丹楓明晚日
숲 가득 누런 잎은 무서리 맞고 떨어지네	滿林黃葉隕輕霜
한 없는 객수(客愁)도 잠들면 그뿐이나	羈愁浩蕩惟堪睡
이루지 못한 장대한 뜻 오할(迂闊)함만 후회되네	壯志蹉跎轉悔狂
서울에 있는 벗들도 나를 생각하여 줄까	京洛故人相憶否
젊은 나이에 병도 많아 벌써 머리 희끗하네	少年多病鬢毛蒼

장유는 조선시대 문신이다. 이 시는 장유가 중앙정계에서 쫓겨난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을하늘에 이런저런 상념은 끝이 없다. 서풍을 따라 나아가는 철새들, 저녁 햇빛에 반사되는 단풍나무, 서리를 맞고 떨어지는 숲에, 가을날의 객수(客愁)도 잠들면 다 잊혀진다. 그럼에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젊은 날에 품었던 큰 꿈이다. 어가는 가을날 서울에서 벗어난 이 몸을 친구들은 생각이나 하여 줄까? 그 큰 꿈을 꾸기에 이 몸은 벌써 늙어가고 있다. 화려한 가을날과 대비되어 자신의 늙어감을 한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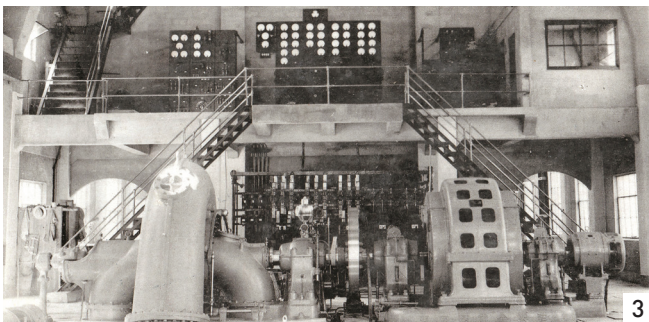
정 훈 군산대학교 교수

흑백 사진 속 전라북도(정읍 - 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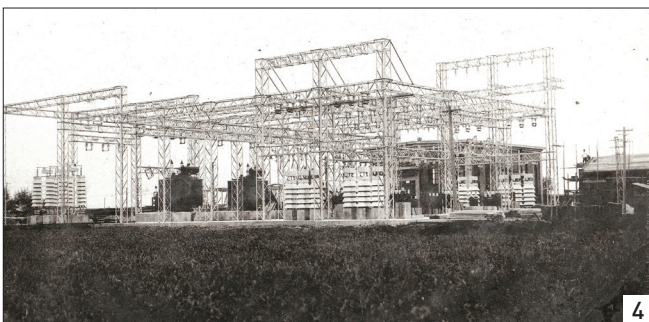
종걸 스님 동국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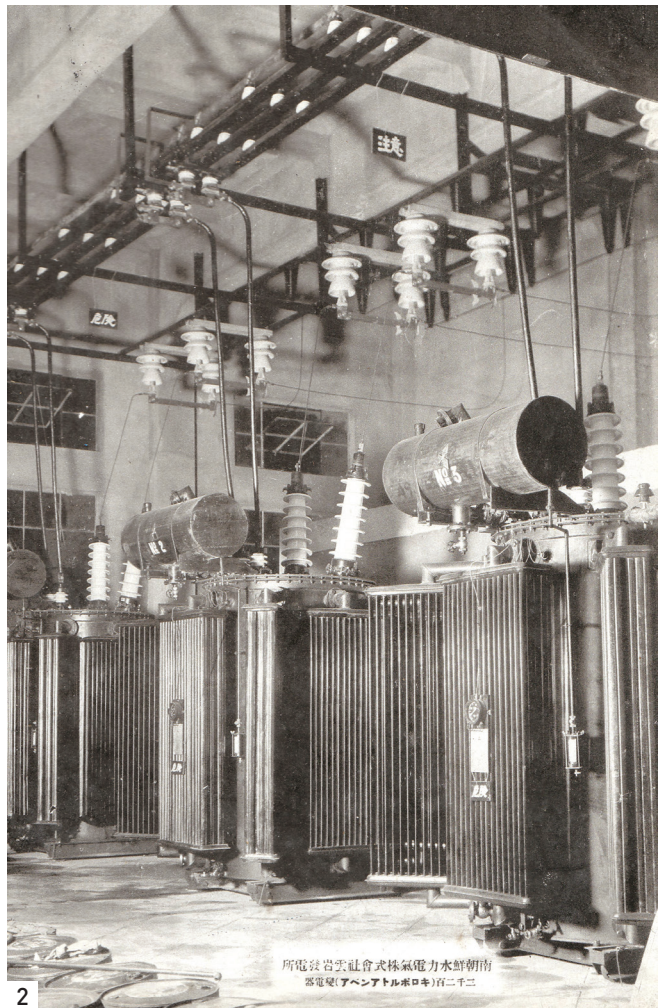
1



3



4



2

- 1, 1931년 준공한 남조선수력전기주식회사 운암발전소(정읍 태인 섬진강 칠보 수력발전소)
- 2, 2200킬로볼트 암페어 발전기
- 3, 발전소내의 4천2백마력 수차(2200킬로볼트 암페어 발전기) 모습
- 4, 운암발전소에서 운영한 이리변전소 전경

소요 태능

김방룡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선학회 회장

조선 후기 불교계는 청허 휴정(1520~1604)과 부휴 선수(1543~1615)의 제자들에 의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도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허계는 사명 유정·편양 언기·소요 태능·정관 일선 등의 4대 문파가 형성되고, 부휴계는 부휴의 법을 이은 벽암 각성에 의하여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하여 단일한 문파를 형성한다. 그러나 휴정과 선수 모두 부용 영관의 제자이고 보면 이들 사상 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17~18세기에 이르면 승려들이 지닌 문중의식은 유학자 못지않게 강화된다. 휴정의 4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태능은 부휴에게 불경을 배우고 휴정의 법맥을 이었는데, 그 태능의 부도비가 현재 금산사 부도전에 남아 있다.

소요 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성은 오(吳)씨이고 본관은 담양이다. 13세 되던 해 백양사에 놀러갔다가 그곳의 경치에 취해 출가를 결심하여, 진(眞) 스님을 쫓아 머리를 깎고 경과 율을 배웠다. 이 무렵 부휴는 속리산과 해인사 사이에서 교화를 펴고 있었는데, 태능이 남쪽 지방을 두루 유력하며 제방 선지식을 찾아다니다가 부휴의 문하에 들어가 『화엄경』 등의 경전을 배웠다. 부휴는 노수신과 교유하면서 당시 시문에 능하여 그 명성이 자자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이 그 명성을 듣고 부휴를 찾아 해인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부휴 밑에 수백 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태능과 운곡 충휘(雲谷冲徽) 그리고 송월 응상(松月應祥)을 법문삼걸이라 불렀다. 태능의 『소요당집』에는 200여편의 시와 계송이 실려 있는데, 사상이 깊고 품격이 높아 국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부휴로부터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태능은 또 휴정이 묘향산에서 선풍(禪風)을 크게 진작시

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를 묻는다. 휴정은 한번 보고서 태능을 법기(法器)라 여기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태능은 휴정의 회상에서 3년여 선(禪)을 참구한 끝에 스승의 명에 따라 당(堂)을 열고 법화(法化)를 편다. 이때의 나이가 겨우 20세였다. ‘소요(逍遙)’라는 법호는 『장자』의 ‘소요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소요임성(逍遙任性) 무위한인(無位閑人)’ 즉 ‘성품에 맡겨 소요하면서 자유자재하는 한가로운 도인의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태능이 중국 마조와 임제를 잇는 임제선의 무위임운(無爲任運)의 선풍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태능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에는 참전하지 않았으며, 불전에 재를 베풀고 민중들과 고통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때에는 나라의 명을 받고 남한산성의 서성(西城)을 정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태능이 지리산의 연곡사와 신흥사를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무너진 절을 다시 중창한 것으로 보인다.

부휴와 휴정의 두 스승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고 교학과 선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던 태능은 1649년(인조 27) 88세(승랍 73)의 나이로 열반에 들었다. 서산의 제자 중에서 태능은 편양 언기(鞭羊彦機, 1581~1644)와 함께 선(禪)의 두 우두머리로 추앙되었으며 뒤에 태능의 문하가 일파를 이루어 소요파라고 불리웠다. 태능으로부터 선종을 이은 이는 침광 현변(枕光懸辯)이고 교종을 전수받은 사람은 해운 경열(海運敬悅)이다. 그에게 제자가 수 백명이 있었는데, 전법(傳法)제자만도 30여 명에 이른다고 전한다.

태능의 생애와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백현(白軒)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지은 『소요당비명』과 태능의 11

대 법손인 예운 혜근(猗雲惠勤)이 지은 『소요대선사행장』 그리고 법해 각안의 『동사열전』의 기록과 그의 사후 150년이 지난 1800년경 목판으로 간행된 『소요당집』 등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참조하면, 태능의 입적 후 2년이 지난 1651년(효종 2)에 태능을 흠모해왔던 효종이 ‘혜감선사(慧鑑禪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당시 영의정 이경석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그 비를 금산사에 세우게 한다. 태능의 부도는 금산사와 지리산 연곡사 및 보개산 심원사의 세 곳에 세워졌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태능과 금산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듯한데,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해 각안의 『동사열전』에는 태능에 대한 기록이 그의 비중에 비하면 너무 약소하다. 그 같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편양파에 속한 각안이 아마도 의도적으로 간략히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요파에 속한 인물 중에는 대둔사 13강백 중의 하나인 아함 혜장이 있는데, 그가 대흥사가 아닌 백련사에서 활동한 것을 보면 당시 대흥사는 소요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태능은 40세 이후 지리산 연곡사나 신흥사에 주로 주석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태능이 금산사와 관련이 있다면 이 시기일 것이다. 이 당시 금산사는 1598년 정유재란을 맞이하여 86동 건물과 40여 암자가 모두 불에 타고 금강문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끝난 3년 후인 1601년(선조 34)부터 수문(守文)과 천택(天澤) 스님이 중심이 되어 35년간의 중창불사를 거쳐 지금 사찰의 기본적인 모습을 복원하게 된다. 수문 스님 이후 금산사의 주지 스님은 『금산사사적』과 『남악당태우비』 및 『금산사대법당중수기』 등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1635년부터 지훈(智訓) 그리고 1705년부터는 해옥(海玉)이다. 태능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이들이 태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소요당집』의 발문 가운데 이경석의 6세 손으로 당시 순창군수를 지낸 이면휘(李勉輝)가 1800년에 쓴 발문이 있는데, 태능의 6대 법손인 춘담(春潭) 스님이 태능의 시편을 모은 것을 보고서 태능의 시의 뛰어남에 감탄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 태능의 선법을 이어받은 침굉 현변의 『침굉



집』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는 태능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태능의 비문을 쓴 백현 이경석과 관련된 세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경석이 비문을 지을 때 아마도 침굉이 태능에 관한 자료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할 따름이다. 침굉은 13세에 지리산에 들어가 태능으로부터 뛰어남을 인정받았던 고승이었고, 지리산 연곡사와 조계산 송광사 그리고 선암사 및 금화산 징광사 등에 주석하였다.

부휴와 서산 및 태능과 침굉 그리고 아암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당시 선과 교에 가장 뛰어났으며, 시에 능하고 당대의 유학자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하였다는 점이다. 왜란과 호란의 전란과 그 이후 불교계에 이 같은 고승들이 즐비하고 있다는 점은 조선 후기 불교가 척박했다는 우리들의 선입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태능과 금산사의 관계는 수문대사가 금산사를 중창하는 과정 속에 태능의 역할이 컸던 것이 아닌가 짐작할 따름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위도 임수도, 심청이 해신으로 환생하다

고 윤 정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석사과정

현실에 되살아난 소설이야기

섬 여행에는 설렘이 있다. 육지와와의 단절이 주는 긴장감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많은 전설과 사연을 지닌 위도는 그야말로 판타스틱하다. 엽전으로 정금다리를 놓으려 했다는 안동 장씨 이야기와 칠산바다 형제섬 전설, 홍길동이 이상향으로 꿈꿨던 섬 울도국. 그중에 심청전의 전설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위도의 부속 섬 임수도는 베일에 싸인 신비의 섬 그 자체이다. 그곳이 바로 심청이 바다에 빠졌다는 인당수란다. 그래서 섬 이름도 임수도다.

심청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소설속의 주인공이 마치 실존인물처럼 위도 임수도에서 몸을 던졌다고 전해온다. 백령도를 비롯하여 전남 곡성에서도 심청의 관련설화를 주장하고 있다. 설화를 소설로 보지 않고서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닌가 싶다.

지난 2000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팀은 전남 곡성군의 관음사 연기설화의 고증과정에서 위도 인근에 있는 임수도가 심청이 빠진 인당수라는 주장을 했다.

발굴과정에서 백제시대 석실분과 고려시대 유물, 송대의 동전 등 다양한 유물들이 나와 이를 근거로 위도는 고려시대에 중국과 성행하던 해상교역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위도의 부속도서인 임수도 해역이 바로 심청전의 인당수라는 주장을 제기했던 것이다.

지금의 임수도는 물살이 세고 물의 흐름이 복잡한 곳으로 중국 상인들이 이 부근을 지날 때 성난 바다를 잠재우

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심청을 바다의 제물로 용왕님께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옛날 뱃사람들은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제물로 팔린 것처럼 해로(海路)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용왕에게 인신공양을 하며 제사를 지냈단다. 산사람을 수장하는 것이 악습으로 지목되자 뱃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문인석을 제물로 바쳤는데 위도에 아직도 그 증거가 남아있다고 한다.

사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근거를 찾는 것 자체가 어찌면 어불성설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최근 지자체들은 홍보를 위해서 자기 지역이 설화의 근거지임을 주장하고 있음에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심청전의 모태 관련 설화

소설 심청전은 연대나 작가 미상이다. 이 소설의 백미는 효녀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대목이다.

주인공 심청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눈 먼 아버지 심봉사 밑에서 자란다.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한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남경 상인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물에 빠진 심청은 용궁에서 어머니를 만난 뒤 연꽃에 둘러싸인 채 인당수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때 남경 상인들이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떠 있는 연꽃을 발견하고 이를 왕에게 바치고 왕은 연꽃에서 나온 심청을 왕비로 맞아들인다. 심청

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왕에게 맹인 잔치를 열어달라고 청한다. 맹인 잔치에서 심청과 심봉사가 만나고 딸을 만난 기쁨에 심봉사는 두 눈을 번쩍 뜨게 된다.

이처럼 심청전 주요 줄거리는 거타지 설화와 작제전 설화, 그리고 효녀 지은 설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진성여왕 때의 명궁 거타지에 관한 설화가 『삼국유사』 권2 「기이편」에 수록되어 있다. 진성여왕 막내아들인 아찬 양패(良貝)가 무리를 이끌고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이때 거타지도 궁사로 뽑혀 따라가게 되었다. 일행이 당나라로 가는 도중에 곡도(鵠島)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양패가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니 “섬 안에 신령한 못이 있어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풍랑을 멎는다”하므로 일행은 그 못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니 못물이 높이 솟아올랐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만 이 섬에 남겨두고 떠나면 순풍을 얻으리라”하였다. 양패가 섬에 남을 자를 가리기위하여 각자의 이름을 적은 목간(木簡: 글을 적은 나무 조각) 50쪽을 만들어 물에 넣고 제비를 뽑으니 거타지라고 쓴 목간이 물에 잠기었으므로 거타지만 남기고 모두 떠났다.

거타지가 홀로 섬에 남아 수심에 쌓여 있자, 홀연히 한 노인이 못 가운데서 나오며 말하기를, “자기는 서해의 신인데 매일 해 뜰 때마다 하늘에서 한 중이 내려와 다라니를 외며 못을 세 바퀴 돌면 자기와 가족들이 모두 물위에 둥둥 뜨게 되고, 그때마다 그 중이 자손들의 간(肝)을 하나씩 빼 먹어 지금은 자기 아내와 딸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그 중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에는 그를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거타지가 쾌히 승낙하니 노인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거타지가 숨어서 그 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니, 과연 한 중이 내려와 주문을 외고 늙은 용의 간을 먹으려 하였다. 그 순간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혔다. 중은 곧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떨어져 죽었다.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거타지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하며 딸을 한가지의 꽃으로 변하게 하여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주

었다. 그리고 두 마리 용에게 명하여 거타지를 받들게 하고, 사신 일행이 타고 가는 배를 뒤쫓아가 그 배를 호위하여 무사히 당나라에 도착하게 하였다.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의 배를 두 마리의 용이 받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임금에게 이를 아뢰니, 임금이 신라의 사신은 비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겨 성대해 대접하고 후한 상까지 내렸다. 고국에 돌아온 거타지는 꽃가지고 변한 노인의 딸을 다시 여자로 변하게 하여 그녀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 설화는 용의 구출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에서 『고려사』 「세계(世系)」의 작제건설화(作帝建設話)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작제건설화에서 항해 도중 풍랑이 사나워져서 점을 치니 고려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하여 작제전이 섬에 내린다. 서해 용왕이라는 노인이 나타나 작제전에게 부처의 모습을 한 자를 퇴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작제전이 노인을 해하려는 부처를 활로 쏘아죽이니 그 부처는 늙은 여우로 변했다. 그 후 용왕의 딸과 작제전이 혼인하여 함께 잘 살았다는 내용으로 거타지설화와 매우 비슷하다.

신라시대의 효녀 지은에 관한 설화는 효행 설화의 하나로 『삼국사기』 권 48과 『삼국유사』 권5 「효선편」에 수록되어 있다. 지은은 연권의 딸인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나이 32세가 되도록 출가를 하지 않았으나, 결국 살림에 쪼들리게 되어 쌀 여남은 섬에 자기 몸을 팔았다. 이러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통곡하였고 지은도 함께 울었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효종왕은 그 효성에 감탄하여 곡식 100섬과 옷을 보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낭도들도 각각 곡식을 보냈다. 왕도 이를 알고 곡식 500섬과 집을 하사하여 잘 살도록 해주었다는 이야기다.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 보타구의 심청

중국에서도 심청이가 숭배되고 있다. 주산군도 연화양 기슭에 심가문이 있는데, 그 마을에 심국공이라는 부호가 심청이와 국제 혼인을 하여 살았다는 이야기다.

중국 주산군도 심청이야기의 발단은 2000년 전남 곡성군 심청학술조사단이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를 방문하여 학술조사를 보타구와 곡성군의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보타구의 심청문화가 생성된다.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에 등장하는 원량의 딸 홍장이 심국공의 아내가 되었다는 한중합작의 새로운 심청전이 만들어졌다.

내용은 홍장을 데리고 살던 원량이 홍법사 화주승 성공스님을 만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홍장을 홍법사에 보시하기로 하였다. 얼마 후 홍법사 성공스님은 두 배의 화물을 받고 홍장을 중국 상인 심국공에게 팔았다. 심국공은 홍장을 데리고 한국 소량포에서 배를 띄워 고향인 절강의 보타 심가문으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홍장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름을 심청이라고 고쳐주었다. 심청은 중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나 언제나 고향에 계시는 눈먼 아버지를 못 잊어 아버지의 눈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 596존의 관음불상을 조각하여 백제에 보냈다.

중국 주산군도에 전해지는 심청설화는 시대적인 배경이 4세기 초이며, 우리나라의 고려 초와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심청전은 중국 송나라 입국초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실제 심청전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이니 중국과 우리나라의 심청이야기는 거리가 있다. 단지 홍장이 효녀라는 정서와 인신공희하는 문화적 전통이 일치하였던 것이 심가문의 심청설화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요인인 것 같다.

판소리 심청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다

우리나라 심청이야기는 대략 조선 순조 때 1800년대 초부터 가객들이 판소리로 짜서 부르기도 하고 판소리의 사설을 글로 옮겨 적어 이야기로 읽기도 했다. 조선후기 판소리 연구가인 송만재는 관우희(觀優戲)에 다음과 같은 관곡시를 남겼다.

효녀가 가난으로 삼가 몸 팔아 / 장삿배를 따라가서 물귀신 제물 되네.

하늘이 꽃으로 지켜 왕비가 되게 하고 / 잔치 끝에 아비는 비로소 눈을 뜬다네.

판소리 심청가는 유교와 불교에 그 사상적 배경을 둔 작품이지만 전편을 통해 심청의 효행을 그린 노래다. 전체가 대단히 길다. 그중에서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밤의 심청 탄식, 사실을 알게 된 심 봉사의 통곡, 심청이 뱃사람을 따라가는 대목, 배가 인당수로 가는 범피중류 대목, 물에 들기 전의 심청의 탄식과 인당수 묘사 대목, 고사 지내는 대목, 물에 빠지는 대목들은 심청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 심청가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한곳을 당도하니 이는 곧 인당수라 대천 바다 한 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쳐, 안개 뒤섞여 젖어진 날, 갈 길은 천리만리나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둡 정그러져 천지적막한데, 까치늪 떠돌어와 뱃전머리 탕탕, 물결은 위르르 출렁출렁 도사공 영좌이하 황황 급급하여 고사지제를 차릴제, 섬 쌀로 밥 짓고 온 소 잡고 동우술 오색탕수 삼색실과를 방위차려 갈라 궤고 산뎛 잡아 큰칼 꽃아 가는 듯이 바쳐놓고 도사공 거동봐라 의관을 정제하고 복채를 양손에 쥐고 북을 두리둥둥 동 동 동 비렴으로 바람주고 해역으로 인도하여 환난없이 도우시고 백천만금 퇴를 내어 뚝대 위의 봉기 꽃고 봉기위의 연화 받계 점지하여 주읍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 심낭자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하니,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맛자락 무릅쓰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뱃전으로 우루루 만경창파 갈매기 격으로 뚝뚝 물에가 뚝 빠져노니(중략)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이다. 큰소 잡고 술항아리 가득 맑은 술 담그고 오방색으로 구비된 탕을 끓여내며 삼색의 과일들을 차려놓은 풍경을 자세하게 그렸다. ‘산뎛지 잡아 큰 칼을 쏘아 놓으니 돼지가 기어가는 듯하다’는 대목은 무속의례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다. 우두머리 선장이 복채를 들고 심청의 죽음을 재촉하며 큰북을 뚝뚝 울린다.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맛자락 무릅쓰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뱃전으로 우루루 만경창파 갈

매기 격으로 뗏다 물에가 풍 빠져 노니~'.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을 포함하여 인당수 빠지는 대목이 심청가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심청전의 인당수는 과연 어디일까?

심청이 나서 자란 곳이 황주 도 화동으로 되어 있다. 황주는 중국의 황주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의 황해도 황주로 보는 설이 더 우세하다. 그렇다면 심청이 빠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인당수는 어디일까.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라고 주장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백령도 해역과 위도 임수도 해역이다. 백령도를 비롯한 대청도와 소청도 주민들 사이에는 예부터 심청전 전설이 전해온다.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을 타고 물 위로 떠올랐다. 그 연꽃이 남쪽으로 떠내려 오다가 백령도 남쪽에 있는 바위섬인 연봉바위에 와서 걸려 있었다. 이를 뱃사람들이 보고 임금님께 바쳤는데 연꽃에서 나온 심청이 왕비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장산곶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백령도가 있다. 장산곶에서 백령도 중간쯤의 바다는 예전부터 물살이 세기로 이름난 곳인데 성난 물결처럼 소용돌이치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을 오가며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나 뱃사람들은 인당수라고 불렀단다.

인천시 옹진군에서는 백령도가 심청전의 배경이 된 곳임을 기리고 효행을 권장하는 뜻에서 진촌리 뒷산에 심청각을 세우고 심청전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변산반도 임수도와 석인상

변산반도 바닷길은 격포와 위도 사이에 열려 한·중 해상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항로지점이었다. 그 길목에 임



위도에서 임수도가 잘 보이는 전망대에 있는 심청전 전설 안내석

수도라는 무인도가 있다. 임수도와 촛대바위 사이 바다를 ‘인당수’라고 부른다. 위도사람들은 이곳을 심청이 빠진 인당수로 믿고 있다.

인당수에서 불과 400여 미터 해역은 유난히 수심이 깊어 바람이 불어 해상주의보가 발령될 때에는 조류가 심하고 삼각파도가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빙빙 돈다고 한다. 실제로 1993년 10월 10일 위도를 떠난 서해훼리호가 이곳을 지나가다 침몰되어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최근 위도 진리 바닷가에서 해안도로를 조성하다가 바닷속에서 3구의 석인상이 인양되었다. 이 석인상은 높이 1m 정도의 인형상인데, 위도와 부안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석인상의 복식이 송나라 관복 형태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중국의 남정사인들이 사단항로를 타고 변산반도에 정박하였다가 임수도 근처에서 해상제의를 거행하면서 석인상을 바다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임수도의 인당수에 던진 것이 조류에 의해 위도까지 밀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도 주민들은 이 석인상은 변산반도와 위도 사이의 바닷길을 지나는 중국 상인들이 임수도에서 인신공희 방식으로 대리석 인형상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진리에 사는 서봉신(67세)씨의 대문 앞에 보관되어 있으며, 치도리 노인회관 담장아래에 2기가 보존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연세대 연구팀이 위도 인근의 임수도 해역을 심청전의 인당수라고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남 곡성에서는 해마다 가을이면 심청이 축제를 하는데 심청이가 살던 곳이 전남 곡성이라는 것도 위도 임수도가 인당수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심청전에 나타난 해양문화와 역사

심청전의 출현 시기는 18세기로 알려졌으나, 심청전의 역사적 배경은 중국 송의 태조(960~975)로 고려 초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고려시대부터 해안지역에서 전승해온 관음연기설화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조선후기 효자열부시대를 거치며 심청전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청전의 해양문화는 심청전의 역사적 배경인 고려시대에 중국 송나라와 고려와의 해상교류 속에서 성립된 설화로 보아야 한다.

중국과 연결된 사단항로는 항주만 남경에서 출발하는 황해사단

항로와 영파 주산군도에서 출발하는 동중국해 사단항로가 있다.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중국 주산군도에서 서해바다를 건너오면 흑산도를 경유하여 곧 바로 변산반도 위도, 고군산도에 들어오는 직항로이다.

고려사신으로 온 송의 서공은 위도를 고섬섬(고슴도치섬)이라며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이 뱃길을 소개했다. 심청전에서 등장하는 남경상인들은 항주만의 남경에서 출발하여 황해 사단항로를 타고서 위도 또는 변산반도의 앞 바다를 통과하여 고군산도에 정박하였던 것이다.



부안 격포와 위도 사이에 위치한 임수도와 그 해역



위도 치도리 노인정 안 대리석 석인상

심청전은 심청이 인당수 투신이라는 입사식을 통해 신데렐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한편의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홍길동이라는 의적이 실존했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실제로 있었다. 심청전 또한 한 편의 소설 속에는 천 년 전 한 부녀의 감동스토리 뿐만 아니라 설화에서부터 고려시대 한반도와 중국의 해상교역 및 관련 풍습까지 다양한 역사가 담겨있다. 어쩌면 역사는 때론 소설이라는 갑옷으로 위장한 채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Special EUROPE, 유럽의 공연장 1

김 흥 수 투어컨설터

극장 견학이 자유로운,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멋진 오페라 하우스나 콘서트 홀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빡빡한 일정 탓에 공연을 볼 수 없다면 짧은 시간 극장 투어만 해도 큰 소득이 있으리라 본다. 이름난 극장들은 한 시대의 문화 정수를 모아 놓은 곳으로 볼거리가 가득 차 있다. 유명한 공연장은 공연이 없는 날이 더 바쁘다. 복잡한 무대 장치와 멋진 극장 내부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덤으로 수입을 얻기 때문이다.

베를린 필,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 밀라노 라 스칼라좌, 베네치아 산 페니체, 런던 엘버트 홀, 헝가리 국립 오페라

극장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유명 극장들은 낮 동안 극장 투어를 한다. 문제는 입장 인원이 한정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예약 없이 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바쁜 일정 중이라도 쉽게 방문하여 유럽 건축물의 장식 요소와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오페라 극장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파리의 중심부에 있는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이다.

이곳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는 곳이다. 년중 특별한 날 2~3일 제외하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언제든지 극장 내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개방한다. 물론 비싼 입장권을 사야 한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다른 극장과 달리 헛



파리 중심, “오페라 가르니에” 전경



1층에서 시작되는 화려한 중앙 계단

걸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표를 예약하고 입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 년 안에 그 티켓을 다시 쓸 만큼 개방적이기도 하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도시 중심에 있어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교통의 요지이다. 파리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중앙에 "오페라"라는 역이 있는데 이 역이 바로 "오페라 가르니에"를 뜻한다. 역 주변엔 라파예트 백화점과 뿌랭땅 백화점이 있고 지하철 두세 정거장 거리에 파리의 유명 관광명소가 다 모여 있다. 일반적인 파리 시내 투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건물을 지나치게 된다.

가르니에 오페라는 극장 자체를 박물관 개념으로 관리하여 입장이 자유로운 만큼 단점도 존재한다. 다른 극장 투어와는 달리 가이드없이 관람객이 자유롭게 둘러보는 형태여서 무대 뒷편 작업장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섭섭함을 해소하려면 미리 가이드 투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냥 극장만 보아도 본전은 빼고 남는 장소다. 이곳은 공연 수입보다 극장 투어 수입이 더 좋을 것 같아 내심

부러운 곳이다. 우리나라도 멋진 경기장이나 극장에 관련 박물관을 두고 공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오페라 가르니에”의 공식 명칭

“오페라 가르니에”는 “가르니에 궁전” 또는 “파리 오페라”라고 불려졌다. 1989년 파리지 동부 바스티유에 새로 운 오페라 하우스가 신축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건축가 가르니에의 이름을 따 “오페라 가르니에”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은 초대 음악감독으로 정명훈 님이 지휘봉을 잡아 우리에게 친숙한 극장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오페라 가르니에를 구 극장, 바스티유를 신 극장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이 두 극장을 관리하는 연주 단체는 파리 국립오페라단이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오페라와 발레, 바스티유는 오페라와 콘서트를 주로 연주하고 있다.

파리 국립 오페라 홈페이지 : <http://www.operadeparis.fr/>



궁전 대연회장을 연상 시키는 “그랑 뷔와예”



샤갈의 천정화 “꿈의 꽃다발”

“오페라 가르니에” 독특한 건축 양식

유럽의 맹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인 만큼 역사와 음악성을 인정받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 이면에 이 극장의 외관과 내부의 호사스러움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1860년에 개최한 건축 공모에서 신인과 다름없던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가 뽑혔다. 1875년 개관식에서 나폴레옹 3세 황후가 “이 건물은 대체 무슨 양식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가르니에는 “나폴레옹 3세 양식입니다”라고 망설임없이 대답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고전에서 바로크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혼합하여 만든 건축을 본인도 어떤 양식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웠나 본다.

이 극장은 웨딩케이크를 닮았다고 파리시민들은 말한다. 화려한 케이크에 다양한 조각 작품까지 곁들인 외관보다 내부 장식이 더 호화스럽다. 프랑스 각지에서 모아 온 색색의 대리석을 사용했다는 바닥, 계단, 난간, 기둥은 자연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높은 천정과 넓은 계단도 이 극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대연회장 “그랑 뷔와예”는

베르사이유 궁전의 대연회장을 연상시킬 만큼 호화스럽다. 그중 백미는 객석 천장 상들리에를 감싸고 있는 샤갈의 작품 “꿈의 꽃다발”이 아닐까 싶다.

잘못 알려진 “오페라 가르니에”에 규모

인터넷에서 ‘최대 오페라’를 검색하면 오페라 가르니에가 나온다. 오페라 가르니에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퍼져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대로 와전된 듯하다. 가르니에의 규모는 세계 최대가 아니다.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을 비롯하여 3,000석 이상의 큰 극장이 여럿 있다. 파리의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만 해도 2,700석으로 가르니에보다 규모가 더 큰 극장이다. 오페라 가르니에의 공식적인 객석 수는 2,160석에 보조 의자 40석을 더하여 2,200석이라고 한다. 객석 수가 아닌 극장 전체 면적으로도 분명히 가르니에가 최대 규모는 아닐 것 같다. 무작정 퍼 나르기 때문에 진실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단, 호사스러움에 있어 세계 최고를 가린다면

견주어 볼 만하다.

“팬텀 오페라”와 가르니에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Phantom Opera)”이 살던 극장이 어디였을까? 오페라의 유령 원작은 가스통 르루의 소설이다. 르루는 프랑스 사람으로 이 소설을 구상할 때 오페라 가르니에가 건축 당시 지반에 물이 많아 인부들이 펌프로 쉽없이 물을 퍼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일화에서 힌트를 얻고 파리의 유명한 지하 하수도를 결합하여 지하에 호수가 있는 극장을 만들어 냈다. 또, 오페라 가르니에는 1869년 공연 중 6톤이나 나가는 상들리에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천정에서 떨어진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팬텀 오페라의 첫 장면, 상들리에가 떨어져 박살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을 차용한 것이다. 고로, 팬텀 오페라의 무대는 바로 오페라 가르니에이다. 웨버의 뮤지컬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오페라 가르니에”는 더 유명해졌다.

더 댄스 La Danse

오페라 가르니에 파사드를 장식하는 많은 조각 작품 중 정면 오른쪽에 유독 눈에 띄이는 조각이 하나 있다. 이 작품이 바로 “장 바티스트 카르포”의 “더 댄스 La Danse”이다. 지금 보노라면 그다지 야할 것이 없지만, 건축 당시 이 작품의 선정성이 문제가 되어 대단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시민들이 조각 작품에 물감을 뿌리며 비난을 하였다는 “더 댄스” 원본은 오르세 미술관에 옮겨 두고 지금은 복제품을 세워 두었다. 덕분에 조각가 ‘카르포’도, 오페라 가르니에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샤갈과 가르니에

“마르크 샤갈”의 천장화 “꿈의 꽃다발”이다. 이 천장화



외관 못지 않게 품위 있는 공연장 객석

는 생각없이 봐도 탄성이 나올 만하다. 감히 저곳에 대단한 낙서같은 작품이 어울릴 거라고 그 누가 상상했을까? 거대한 상들리에가 켜지면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아무튼, 샤갈의 작품은 잘 익은 복숭아 향기가 전해지는 듯하다.

INFORMATION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 투어 티켓은 현장에서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당일 입장객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 인터넷 구매를 하여 프린터로 티켓을 출력해 가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인터넷 티켓 구입 : <http://visitepalaisgarnier.fr/en>

○ 휴관 :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매일 오픈.

단, 특별 행사가 있으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 입장 시간 :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입장

○ 티켓 유효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요금 : 성인 10유로, 학생 (25세 미만) 6유로

오페라 가르니에 홈페이지 : <http://visitepalaisgarnier.fr/en>

파리 국립 오페라 홈페이지 : <http://www.operadeparis.fr/>

태인의 홍룡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下

이진우 정읍시 향촌문화사학자

결국 36사에 포함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못해서 태인의 홍룡사는 원속전 150결을 새로 지정된 장안사에 넘겨주고 선종 18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 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중종 25년(1523년)에 홍천사 영천사 구재모악산 즉, 홍룡사와 영천사는 함께 모악산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면 적어도 이때까지도 홍룡사는 사찰로 존속되었던 것이고, 범우고가 편찬된 1779년에는 이미 폐찰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출간된 『고교 역사부도』에는 조선시대에 사사혁파 후 지정된 36사가 지도와 함께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정읍 역사 속의 대찰 홍룡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의 위치 불명으로 기록된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근래에 이르러 여러 차례 실시된 폐사지 조사에서 홍룡사는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무엇보다도 현지에 불적이 남아 있지 않은 탓에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펴낸 『불교사원지』 하권에서는 아예 배제되었고, 2014년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전북의 사지』 「정읍시」편에도 실리지 못했다.

1990년에 나온 전라북도 『사찰지』에는 홍룡사에 대해 “그 위치와 유래가 분명치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불우조에 ‘영천사, 홍룡사 俱在모악산’이라 하였으니 펍 오래된 사찰로 짐작된다. 그런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5년(세종 7) 5월 ‘태인현홍룡사화재’라는 기록이 있으니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홍룡사 화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한글학회 지명총람 전라북도편에 동곡리의 소지명으로 홍룡골과 홍룡사가 실려 있어 단서를 제공한다. 지도에 홍룡골과 홍룡제가 표시되어 있고 동의기념비 우측 골짜기 깊숙이 야정리 도요지가 있는 곳에서 다량의 와편이 출토되었다

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 이곳이 절터였다는 주민들의 구전과 현장 답사 결과 도요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와편과 도기편이 다수 수습되어 이곳이 홍룡사지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지리적으로 김명관 고택이 위치한 오공리 일대에 자리하고 조선시대 평사낙안으로 유명했던 평사리와 인접해 있는 것을 볼 때 홍룡사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 풍수지리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유추해볼 수 있는 사찰지이다. 이름 있는 대찰들이 명산에 자리한 것과 달리 홍룡사는 낮은 산자락을 끼고 자리하고 있다. 홍룡사 북쪽에는 높이가 575m인 상두산이 있고 이 산의 남쪽 기슭에는 옛날 상두사의 터가 있다. 남사면에서 상두천이 발원해 남류하다가 동진강에 합류한다.

상두산은 석가모니가 수행하던 인도의 상두산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도 하고, 그 생김새가 코끼리 머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홍룡사 서쪽에는 명당으로 알려진 비봉산 아래 수암마을이 있다. 비봉산과 수암마을 사이 산자락에는 근래 천안전공 장군지묘가 발견되었는데 동도대장전봉준의 묘라고 구전되어 온다.

김명관 고택은 평사낙안의 명당터에 세워진 조선시대 99칸 집이다. 김명관 고택이 자리한 오공마을에서 북쪽으로 11킬로미터 떨어진 해발 575미터의 상두산(象頭山)에서 시작된 혈맥이 마을 북쪽 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해발 380미터의 물래봉과 서북쪽 비봉산(飛鳳山)을 거쳐 마을 뒷산인 지네산으로 이어졌다고 한다.¹

홍룡사는 불교의 성산 이미지를 지닌 상두산에서 명당터로 알려진 비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중간쯤인 물래봉 남

1 「김호년 선생의 우리강산 풍수지리, 산과 마을 나무 심어 연결한 지네형국 ‘오공리」, 뉴스타운 2016.05.04

쪽의 호리병처럼 좁고 깊숙한 골짜기에 남면(南面)하여 숨은 듯 자리하였다. 고려시대에 명찰로 자리했던 홍릉사는 조선 태종 때 전국의 88개 자복사에 포함되었고, 세종 때 사사혁파에 의해 천태종에서 선종으로 강제되고 선종 18사에 지정된 지 1년 만에 원속전 150결을 장안사에 넘겨주고 화재까지 당하며 사세가 급격히 기울 것으로 보인다.

3. 홍릉골 습지와 도강김씨 의열비

2020년 5월 3일 오후 홍릉사지를 정읍의 문화관광해설사 세 분과 동행하여 답사를 하게 되었다. 시작은 김개남 장군 생가터와 고택터 답사였으나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홍릉골을 답사하게 된 것이다. 지금실 김개남 장군 묘소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좋았는데, 동의기념비 앞에는 유적지 크기에 비해 훨씬 넓은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 살짝 비교가 되었다.

홍릉골로 가는 길은 포장된 농로가 있어 순탄하다. 홍릉제에서는 두 연인이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소류지 뒤편 산자락은 물래봉과 연결된다. 물래봉은 물래봉이라고도 하는데 김개남 장군이 살던 지금실이 선녀직금형이니 물래가 있어야 마땅하다. 물래봉 아래 야정리 석가사지가 있고 그 석가사지에는 작은 암자형 사찰인 금선사가 있다.

야정마을 서쪽 빗고개를 넘어가면 조선왕조실록 내장산 이안의 주역 중 한 분이신 안의 선생의 묘소가 있고, 천안전공 장군지묘의 빗돌이 발견되어 전봉준 묘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비봉산 아래 수암마을이 있다. 수암마을은 원래 수약동으로 조선시대에 수약사라는 절이 있었고, 청자를 생산하던 조선시대 태인현의 자기소가 있던 곳으로 지금도 밭에서 청자편들이 채집되는 곳이다.

홍릉골 동편에 동곡마을이 있고, 홍릉골 북편에는 지금마을(지금실)이 있으니 지금마을은 청자와 백자를 생산하던 도요지가 3개소에 걸쳐 발견된 곳이다. 이 지금실의 서편 산자락을 넘어가면 바로 필자에 의해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 2점이 수습된 광음사지가 나온다.

상두산 중턱 상두사지에는 법당터와 3기의 괘불지주가 있으며 대형 주초석 2점과 절에서 쓰던 연자매 1기가 남아 있다. 그리고 상두산 서편의 영천동에는 영천사지가 있고, 물래봉에는 석가사지와 홍릉사지가 있으며, 비봉산 남쪽에는

수약사지가 전해온다.

이들 절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터는 단연 홍릉사지이다. 고려 때 천태종 사찰로 조선 초에는 태산현의 자복사를 거쳐 세종에 의해 단행된 사사혁파로 선종 18사에 지정되었던 명찰 홍릉사는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지위를 잃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갔다.

홍릉제 위로 묘목이 뺏뺏하게 심어진 밭을 지나 임도로 오른다. 풀이 우거져 전에 보았던 백토로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 와편이나 도자기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절개된 산자락에 노출된 검은색의 와편이 보인다. 와편들이 산재한 것으로 보아 홍릉사의 대웅전 같은 건물들은 임도 위쪽 산자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은 숲이 우거져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와편이 보이는 지점을 조금 지나면 좁은 골짜기를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논이 많이 보인다. 이들 다랭이논은 현재 휴경이 이어지며 습지로 탈바꿈했다. 다랭이논들은 200여 m 정도 이어지고 중간에 물을 모으는 웅덩이가 있다. 임도를 따라 300m 정도 올라가면 묘비가 3기 가량 보인다. 일전에 지인으로부터 김개남 장군의 선조 중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신 분의 묘소가 동의기념비 뒷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가가보니 도강김씨 의열비가 분명했다.

연락을 받고 올라온 해설사 세분이 열심히 비문을 읽는다. 그중 한분인 김명주 해설사가 한문 실력을 발휘하여 비문을 해석해준다.

“비석에 새겨진 의립은 도강김씨 중파인 약노의 후손으로 김개남의 9대조이며 정유재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다 문경 조령에서 아버지 명과 동시 순국하시고 그의 처(도계서원에 모셔진 임란 의병장 오봉 김제민 선생의 증손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내용을 새긴 것이다.”

홍릉사는 이름 있는 사찰이었기에 이곳에 주석하던 고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할 법도 한데 아직은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절에 있었던 탑이나 불상, 부도, 주춧돌 같은 치석재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홍릉골의 산자락 어딘가에는 그 흔적이 조금은 묻혀있을 거라 믿으며 홀연 세상에 드러날 자취 한 자락을 기대해본다.

전주 (사)전주패션협회 전주시 한지마스크 기부

(사)전주패션협회가 11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마스크 5,000장을 전주시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한 마스크는 전주패션협회가 '2020 전주한지패션대전' 기념상품인 한지티셔츠와 한지사순수건을 온라인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94 인증을 받은 것으로 시내버스 '마스크 기부 캠페인'에 사용된다. 올해 전주한지패션대전은 '한지패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광숙 통신원



장수 동촌가야고분 국가사적 1주년 기념 점화식

장수군은 10월 31일 한누리전당 야외공연장에서 동촌가야고분 국가사적 1주년 기념 봉화점화식이 축제가 있었다. 이날 오프닝행사와 함께 장영수 군수의 인사가 있었고, 오후 6시에 본행사인 점화식 역시 장영수 군수를 선두로 장수군의회장 김용문 의원 등 여러 내빈들이 점화식에 참여를 하였다. 장수군 동촌가야고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가야고분에서 2016년 가야문화권 최초로 말발굽 보호에 쓰던 '편자'가 출토되어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편자는 기술력이 집약된 철제품으로 평가되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불꽃놀이가 터지면서 화려한 축제가 되었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장수군민들만의 축제였지만 마스크를 쓰고 초겨울의 추위에도 한마음으로 행사를 즐겼다.

권정임 통신원



순창 순창단오성황제복원 및 재현을 위한 학술 세미나

순창 지역에서 600여 년이 넘는 동안 행해졌던 성황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0월 17일 열렸다. 순창 단오성황제는 성황제, 두령정이 물맞이, 단오난장, 응양정 그네뛰기 등의 행사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려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인 1940까지 계속된 행사로 인근 장성, 정읍, 남원, 임실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1992년 성황대신사적현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현판은 2000년 국가민속문화재 238호로 지정이 되었다. 성황제 관련 유일한 현판기록과 고려시대 이두문자 자료 및 근거 있는 군현 성황제라는 의미가 컸다고 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순창 단오성황제의 유산 가치와 복원 방향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맡으신 심승구 교수님을 시작으로 종합토론에 송화섭 교수님이 함께 하셨다. 단오제 날이면 무당과 제인들이 삼색 깃발을 걸어 놓고 제례를 하고 제약을 올리며 성황제를 지냈다고 한다. 오랜 시간 순창에서 행해졌던 성황제가 복원이 되어 순창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신적 지주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고 나아가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박재순 통신원



부안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차하 수상

부안군립농악단(단장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 부단장 이옥수)은 지난 10, 11일 전라감영에서 열린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농악부문 전국 3위인 차하를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국악계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올해 46회째로 판소리, 농악 등 총 12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농악부문은 충청,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의 팀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2016년 창단한 부안군립농악단은 흥겨운 판굿으로 마을의 수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지구촌까지 수호할 수 있도록 온정성과 소망을 담은 흥겨운 공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립농악단은 부안 출신으로 설장고 명인인故이동원 선생의 자랑스러운 일을 기리고 흠어져 있는 우리가락을 한데 모으고 정립해 부안농악의 전통성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창단됐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호남우도농악 중에서도 부안농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영훈 통신원



군산 채만식문학관의 詩전시회

군산 채만식문학관에서는 10월부터 시인 단체들의 詩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있다. 11월에는 군산여류문학회 [나루] 회원들이 글과 그림이 새겨진 등을 만들어 [詩지등전]을 열고 있다. 회원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원봉연 통신원



정읍 정읍사와 망부석 학술대회

백제가요 정읍사의 지역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가 정읍사문화재 제전위원회 주최로 10월 30일(금) 정읍 공감플러스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총 6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이루어졌다. 제1주제 정읍사의 연구사 및 연구 성향 검토, 2주제 백제 중방성과 정읍사의 시·공간적 배경과 3주제인 백제가요 정읍사의 지역 문화적 고찰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고, 4주제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 망부석(望夫石)의 역사 현장학적 고찰과 5주제 음악사적 관점에서 정읍사의 생성과 전승 그리고 6주제로 기다림의 사유와 불확장성의 원리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연구자마다 다르게 주장하던 망부석의 위치와 정읍사(井邑詞)의 해석 등은 지역 문화적 측면에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본 학술대회가 추후 부부의 애절한 정이 깃든 망부석과 정읍사(井邑詞)를 올바르게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인례 통신원



전북문화살롱 회원과 소속

강명자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정일 전주시민	신계원 성균진사
강복남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중운 전라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신영남 기산서원 재장
강신교 전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지원 부안계화중학교 교사	신용균 전주시민
강희석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진돈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신정숙 전주시민
계미향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김철배 임실군청 학예사	신태중 한국로하스식품 창업자
고양규 전 홍덕향교 전교	김태현 전주시민	심광섭 전주시민
고윤정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	김한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곽소현 고창 군민	김형호 익산시 문화해설사	안옥선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김혜원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
곽형주 정읍시 향촌문화사학자	김효정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안인례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권용태 한국화가	김희수 윤도장 전수교육조교	안재운 매산장학회장
권이관 완주군민	남궁윤 전주시민	안후상 고창북고등학교 교사
권정임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남기풍 부안 당산마루 대표	양순자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기호직 전 홍덕향교 전교	노기환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양완수 무장면 유도회 회장
김 진 고창군 문화재전문위원	류연봉 전주대학교	오경후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김경미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류필상 고흥류씨 시정공 종중회장	오균호 전 전라북도 의원
김도형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학예연구사	문이화 원광대학교 교수	오종렬 전주시 평생학습관
김동철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문희경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오향심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김방룡 충남대학교 교수	박광식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왕기석 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 회장
김석기 고창군민	박상엽 서울시민	원봉연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성진 원광보건대학교 외래 교수	박연숙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유 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
김세천 전북대학교 교수	박영실 정읍시립박물관 자원해설사	유대성 전주 앵이콩나물국밥집 대표
김순석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장	박옥희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유말봉 전북대학교병원 전 간호부장
김승연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박은숙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유석준 홍덕향교 총무
김양기 고창군 재향군인 회장	박재순 순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유연봉 전주대학교
김양미 고창무장초등학교 교사	백옥종 남원시청	유영춘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김연수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서순영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유종국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김연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서정섭 전북대학교 교수	유철선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영관 전 고창읍장	서정환 신이출판사 대표	유태용 서예문화재연구원장
김영훈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성금태 전 백수우체국 국장	윤영옥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김유진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성혜숙 여행작가	윤철수 전 홍덕유도회 회장
김은경 고창군민	손상국 전 JTV 편성제작국장	은동수 전주시민
김은숙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송민찬 평화문화연구원장	이강현 무장향교 총무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	송병섭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이경희 덕림정사 대표
김재오 정읍이순신연구소장	송화섭 중앙대학교 한국사 교수	이공진 대진산업 대표
김정남 정읍시민	신계숙 영신농장 대표	이관연 전 홍덕유도회 회장

이민석 새만금 개발청	이현석 장수군청	조명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이병섭 전 무장면 면장	이형성 전남대학교 학술교수	조복환 전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이봉규 서울시민	이호근 전 전라북도의원	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대표
이영숙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임경숙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조윤수 수필가
이영일 고인돌박물관 학예사	장미영 전주대학교 교수	조중현 전 무장향교 전교
이용엽 진안박물관 운영위원장	장승익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조준희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은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외래교수	장지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조택수 대한유도회 부회장
이종길 흥덕향교 장의	장현근 북원태학장	종걸스님 동국사 주지
이종수 전 흥덕향교 전교	전명식 전 흥덕향교 전교	진정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종호 신아출판사 상무	전정희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진철중 전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지복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정 훈 군산대학교 교수	차재현 영상의학과 원장
이진우 정읍시 향촌문화사학자	정경량 전주시민	최고효 하늘마을 펜션 대표
이창수 고습원 대표	정관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최명표 문예연구 편집위원
이천승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대영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최우중 전주시청 학예사
이철량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정용철 고창주류 대표	최효숙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철우 후백제선양회	정일송 고창군충효회 회장	한상옥 무장향교 전교
이태영 전북대학교 교수	정정숙 고창군민	한상용 전 상하우체국장
이현배 손내옹기 대표	정휴량 전 무장향교 정교	황미연 전라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지역 통신원

군산시 원봉연(문화관광해설사)	전주시 김혜원(문화관광해설사)	순창군 박재순(문화관광해설사)
김제시 이지복(문화관광해설사)	정읍시 안인례(문화관광해설사)	임실군 강명자(문화관광해설사)
김제시 조준희(문화관광해설사)	고창군 오향심(문화관광해설사)	장수군 권정임(문화관광해설사)
남원시 최효숙(문화관광해설사)	무주군 김한순(문화관광해설사)	진안군 김동철(문화관광해설사)
익산시 유철선(문화관광해설사)	부안군 김영훈(문화관광해설사)	

2020년 입회비 및 연회비

■ 입회비

김효정, 신계숙, 이강현, 이창수, 정경량, 정일송, 조복환, 차재현, 이미완,
서한걸, 전은신

■ 연회비

강복남, 강희경, 권용태, 김경미, 김도형, 김영훈, 김형호, 박은숙, 서정환,
손상국, 송화섭, 안옥선, 이은혁, 이종호, 이형성, 장미영, 정 훈, 최명표
김중운, 박영실, 안인례, 정용철, 서순영, 심승구, 성금태, 이병섭

■ 특별찬조금

후백제선양회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청
고창군청
순창군청
정읍사문화재전위원회

신입회원 현황

강대철 유등초등학교 교장	배요식 순창향교 사무국장	장주연 순창군민
강병문 순창단오성황제추진위원장	서한걸 남원 서진여고 교사	전은신 순창군청
김기점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설인경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팀장	전예라 문화관광해설사, 시인
김대봉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설자연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편집위원	정계임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김봉호 대한노인순창군지회장	설정환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사무총장	제영옥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이사
김선주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손지혜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조순엽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고문
김순래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신명진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최명순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옥분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신열호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이사	최은경 순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재석 작가	안수희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편집위원	하지연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찬곤 부안군민	양두례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한미애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춘덕 부안문화원	양은정 동화작가	황길지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김태숙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양해석 남원시의회 시의원	황호숙 순창군 문화관광해설사
김현숙 자연환경해설사	염명화 부안군민	
김흥수 투어컨설터	이경아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박문화 남원시의회 시의원	이미완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박재순 순창문화원 사무국장	임미란 남원시 종합안내소	
박춘규 김제시청	장교철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장	

전북문화살롱 12월호 기획특집

「선화봉사고려도경과 전라북도」 학술발표 및 송년회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후 5시

행사프로그램 : 학술발표 : 17:00~18:20 송년회 : 18:20~18:50 만찬 : 19:00 (죽림집)

장소 : 행원 (풍남문 앞, 063-284-6566)

〈기획특집순서〉

선화봉사고려도경과 명주(영파) - 백승호 (중국 절강대학교)

선화봉사고려도경과 군산도 - 곽장근 (군산대학교)

선화봉사고려도경과 위도 - 김종운 (전라역사문화연구소)

선화봉사고려도경과 죽도 - 송화섭 (중앙대학교)

선화봉사고려도경과 군산도 오룡묘 - 정상기, 김왕국 (국립전주박물관)

消息



‘살롱salon’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준 지성의 상징이며, 문학 및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비평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 정신을 이끌어가던 장소입니다.

우리 전북의 선배들은 근대 시기에 ‘살롱’과 ‘다방’에 모여서 문학과 예술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전북문화살롱’은,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북의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꽃피우는 담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1. 전북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전북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찾습니다

2. 문화를 꽃피우는 발표와 토론의 장소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6시, 신아출판사 2층

3.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의 대중화를 지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참여하는 회원들이 함께 이끌어 갑니다

회비를 내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식사합니다

| 전북문화살롱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7년 출범한 전북문화살롱은 월1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6시)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전북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부터는 새로운 기획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와 인물 등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의식 저변에서

전북의 아름다운 문화를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전북문화살롱이 가야할 방향입니다.

전북문화의 꽃을 피우는 담론의 장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일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소: 신아출판사 2층 (신아문예대학 강의실)

■ 입회비 2만원(당해년도 연회비 무료) / 연회비 1만원

■ 회비 입금계좌번호: 전북은행 501-13-0441849

■ 연락처: 전북문화살롱 전화 (063)275-4000, 김경미(010-2428-3514)

■ 이메일: jbmunhwasl@daum.net

※ 코로나19로 당분간 월례모임은 중지하고 회보로 대신하겠습니다.